

동물과 함께, 생명의 가치로 동행하다.



동행

同行

vol. 21



국장의 한마디

안녕하세요, 2026년 동행 국장을 맡은 동물생명공학전공 25학번 고솔비입니다.

따뜻했던 봄이 지나 어느덧 계절은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국장을 맡게 된 지난 겨울방학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나는데, 어느새 이렇게 한 권의 소식지를 완성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국장을 맡은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전에 발간되었던 동행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先輩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왔는지, 앞으로의 동행에는 어떤 모습을 더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개강 후 50명의 부원들과 처음 만났던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느꼈던 동행의 즐거움을 이번 신입생들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을지, 동행 활동이 단순히 소식지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함께 회의하고, 의견을 나누며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동행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행 21호는 51명의 학부생이 마음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교수님과의 인터뷰와 토크콘서트를 통해 연구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졸업생 선배님들을 만나 진로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들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부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전하며 학과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많은 부원들이 과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과 열정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동자와 행사팀과 동아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모교 방문을 통해 동물생명공학전공을 알리며 동자과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행의 시간은 정규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졌습니다. 한강 피크닉과 맛집 탐방, 아쿠아리움 방문 등을 통해 부원들과 웃고 이야기하던 시간들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던 부원들이 어느새 편하게 이야기하고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행'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으로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바로 그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동행 부원들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동행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교수님들과 따뜻한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동문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어려운 순간도 웃으며 지나올 수 있었고, 동행 21호도 무사히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한 권의 소식지가 학과의 소중한 기억으로 오래 남고,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작은 추억과 의미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소중한 순간들을 꾸준히 기록하며, 학과 구성원들을 이어주는 따뜻한 소식지로서 함께하는 동행이 되겠습니다.

2026년 여름
고솔비 올림

목차

동자와 타임라인	4
동행 타임라인	6
동물생명공학전공 행사	
단체 야구 관람	8
국담	10
농농유치원(농업생명과학대학 체육대회)	17
축산의 날	20
동자 MT	23
인터뷰	
한재용 교수님	26
이지홀딩스 직무별 인터뷰	31
교환학생	41
학부 연구생	44
동행 속 한 조각 - 네 컷 만화	46
동물생명공학전공 동아리	
동백	48
동요	51
동창	54
FC 동자	56

동행 속 한 조각 - 십자말풀이	58
제3회 동행 토크콘서트	
스페이스에프 김병훈 대표님	60
동행 모교 방문	
여의도고등학교	68
경희고등학교	70
동행 이야기	
한강 피크닉	72
맛집 탐방	75
아쿠아리움	78
동행 여름 MT	80
동행 속 한 조각 - 대신 전해드립니다	84
동행 21호를 만든 사람들	86
에디터의 한마디	87
도움을 주신 분들	100

동자와 타임라인

2026.01.08.

신년회



2026.02.11.~13.

새내기 새로배움터



2026.03.06.

동자와 개강 파티



2026.01.20.

수시 OT



2026.02.26.

정시 OT



2026.04.03.

동자와 단체 야구 관람



2026.04.17.
국담



2026.05.09.
축산의 날



2026.05.22.-23.
동자 MT



2026.05.05.
농농유치원
(농업생명과학대학 체육대회)



2026.05.15.
스승의 날



2026.06.19.
동자와 종강 파티



동행 타임라인

3월

- 03.18. 1차 정기 회의
- 03.27. 한강 피크닉(1팀)
- 03.28. 한강 피크닉(2팀)

4월

- 04.04. 한강 피크닉(3팀)
- 04.07. 소고기 맛집 탐방
- 04.08. 2차 정기 회의
- 04.24. 단체 사진 촬영
- 04.25. 돼지고기 맛집 탐방

5월

- 05.08. 아쿠아리움
- 05.11. 닭고기 맛집 탐방
- 05.14. 동요 부원 김예원 인터뷰
- 05.15. 여의도고등학교 방문
- 05.19. 교환학생 손민영 인터뷰
- 05.20. 동백 7기 회장 정해린 인터뷰
- 05.20. 동창 7기 회장단 인터뷰
- 05.20. 3차 정기 회의
- 05.21. 동요 회장 김광명 인터뷰
- 05.25. FC 동자 주장 하채호 인터뷰
- 05.29. 경희고등학교 방문

6월

- 06.05. 학부 연구생 이예림 인터뷰
- 06.22. 한재용 교수님 인터뷰
- 06.22. 이지홀딩스 직무별 인터뷰
- 06.24. 제3회 동행 토크콘서트
- 06.26.~27. 동행 여름 MT

동물생명공학전공 행사

단체 야구 관람



2026.04.03. 잠실종합운동장 잠실야구장

WBC(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가 남긴 뜨거운 야구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4월 초,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동자와 재학생들은 잠실야구장으로 향했습니다. 4월 3일에 펼쳐진 이번 경기는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의 홈 개막 시리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습니다. 홈팀 두산의 상대는 최근 3연패의 사슬을 끊고 분위기 반전이 절실했던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양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앞둔 터라 경기 시작 전부터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경기장 근처는 이미 각 팀의 유니폼을 차려입은 팬들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설레는 마음으로 티켓을 확인하고 경기장에 입장하던 중 저희는 두산 베어스로부터 예상치 못한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홈 개막전을 기념하여 전 관중에게 증정된 반다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굿즈를 손에 쥔 학생들의 얼굴에는 금세 웃음꽃이 피었고, 너나 할 것 없이 반다나를 목에 두르거나 머리에 쓰며 직관의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뜻밖의 이벤트 덕분에 경기장의 분위기는 시작 전부터 한층 더 뜨겁게 달궈졌고, 관중석은 각자의 방식으로 경기를 즐길 준비를 마친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직관에는 열성적인 두산 팬과 한화 팬이 고루 참여하여 경기를 보는 재미가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팀의 팬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각자 평소 응원하던 팀의 유니폼을 챙겨 입고 온 덕분에 여러 팬이 어우러져 각자의 팀을 응원하는 KBO 리그의 응원 문화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각자 먹을거리를 사 들고 들뜬 마음으로 경기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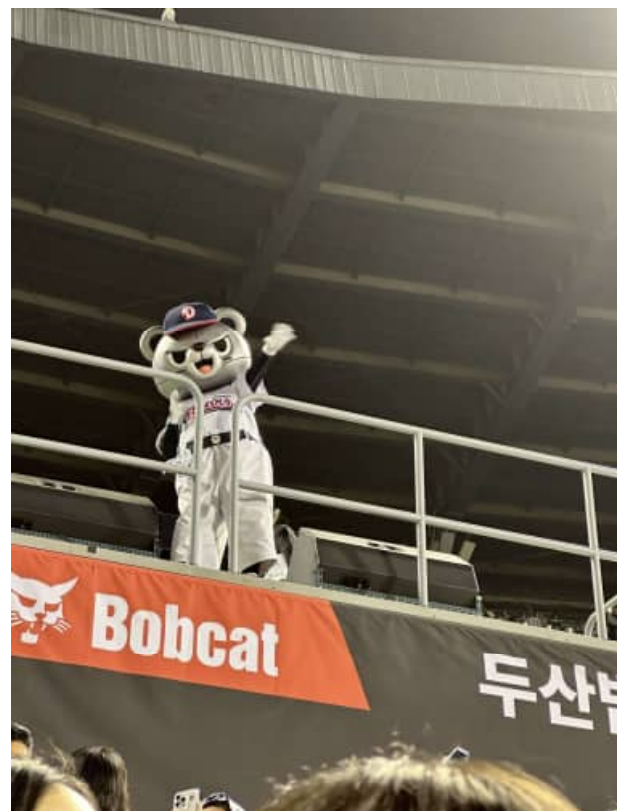
홈팀 두산은 팬들의 함성을 등에 업고 기세 좋게 출발했지만, 경기 초반부터 부상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직면했습니다. 두산의 선발 투수 플렉센 선수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마운드를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급히 양재훈 선수가 등판했으나, 한화의 매서운 기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밀어내기 볼넷과 사구, 그리고 결정적인 적시타들이 이어지며 점수는 순식간에 4:0으로 벌어졌습니다. 이후에도 페라자의 홈런과 노시환의 안타가 터지며 한화가 승기를 굳히는 듯 보였습니다. 두산 역시 6회 말에 추격의 불씨를 지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었으나, 결국 11:6이라는 점수로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경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잠실야구장의 거대한 전광판에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학과의 이름이 빛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평소 일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장면에 동기들 모두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에 바빴습니다. 승패를 떠나 단체 관람객만이 누릴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행 중에는 야구장을 처음 방문해 경기 규칙조차 낯설어 하던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규칙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의 응원에 맞춰 응원가를 따라 부르고, 안타 하나에 함께 환호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과정에서 어느덧 모두가 야구라는 스포츠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직관은 학과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탁 트인 야구장의 활기를 다 함께 경험하며 즐겁게 소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응원하며 보낸 이 유쾌한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대학 생활의 활력을 더해주는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국담



2026.04.17. 서울대학교 201동 101호

국담축산학교육연구재단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학과에서 23년간 연구와 강의를 하신 이승규 명예 교수님께서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1992년 1월 14일에 설립된 교육연구재단입니다. 2026년 4월 17일 국담축산학교육연구재단은 <동물생명공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첨단 융복합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국담 및 목운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주최하였습니다.

1. 개회식

행사는 동물생명공학전공 전공 주임이신 김유용 교수님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국담축산학교육연구재단 이사장이신 윤철희 교수님, 목운문화재단 이사장이신 하종규 교수님, 축산과학기술연구소 소장이신 김영훈 교수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강병철 교수님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재환 동문회장님을 대신하여 유권재 수석부회장님께서 축사를 전하신 뒤 개회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 국담 및 목운재단 장학금 수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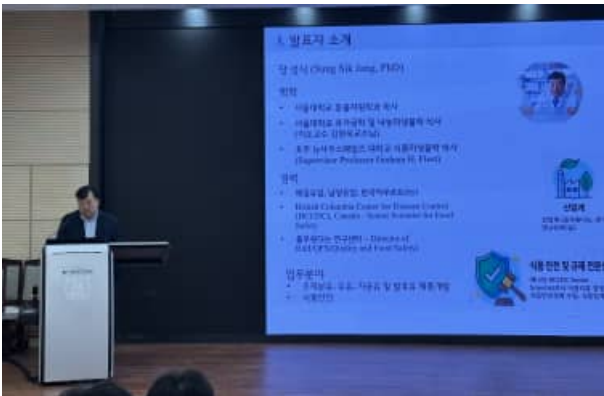
올해는 6명의 학부생과 10명의 대학원생이 국담축산학교육연구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목운문화재단의 장학생으로는 10명의 대학생이 선발되어, 총 26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동물생명공학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권지우 학생과 동물성식품학 연구실의 정현영 박사과정생, 동물번식학 연구실의 김동호 석사과정생이 각각 국담 학부생, 국담 대학원생, 목운재단 대학원생 장학생을 대표해 소감을 발표하였습니다.

3. 동물생명공학 심포지엄

2부 순서로 진행된 2026년 동물생명공학 심포지엄에서는 풀무원다는 연구센터장 장성식 박사님,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부교수 이영희 박사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래형 동물자원센터 책임연구원 어경준 박사님, 총 세 분께서 동물생명공학전공의 방향성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강연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1) 풀무원다는 연구센터장 장성식 박사님

- 유제품 및 발효유 산업 소개



장성식 박사님께서서는 동물생명공학전공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신 후,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이후 국내 주요 유제품 및 발효식품 기업에서 연구개발과 품질 관리, 식품 안전 분야를 두루 경험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풀무원다는 연구센터에서 연구개발과 제품 상용화, 품질 및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강연에서는 먼저 국내 유제품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장 동향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유를 기반으로 한 유제품은 흰 우유, 가공유, 저지방·무지방 우유, 분유, 치즈, 버터, 발효유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며, 이 가운데 발효유는 국내 유제품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설명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발효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유통 측면에서도 대형마트 중심에서 온라인 채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 발효유의 정의와 제조 원리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발효유는 우유를 유산균 또는 효모와 같은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제품으로,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젖산으로 전환되며 pH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유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켜 응집을 유도하고, 그 결과 요거트 특유의 점성과 조직감이 형성됩니다. 또한 유산균

은 발효 과정에서 다양한 대사산물을 생성하여 풍미를 형성하고, 산성 환경은 외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보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발효유의 영양학적·기능적 특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일부 분해되기 때문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섭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단백질이 펩타이드와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되어 소화와 흡수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관련 대사산물은 장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발효유는 산성을 띠기 때문에 개인의 체질이나 위장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장성식 박사님께서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발효유 제품은 단순히 기존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원료의 특성, 소비자 기호, 가격 경쟁력, 품질 기준, 유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합과 제조 공정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서는 실제 생산 공정을 축소한 파일럿 플랜트와 다양한 실험 시설을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내 발효유 산업에서 사용되는 균주에 대한 현황도 소개되었습니다. 발효를 위한 기본 균주(스타터)와 기능성을 부여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특히 기능성 균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특강은 발효유가 단순한 식품을 넘어 미생물학, 식품공학, 품질 관리, 제품 개발, 소비자 시장 분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 분야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더불어 동물생명공학 전공에서 배운 기초 지식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부교수 이영희 박사님 - AI and Healthcare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이영희 교수님은 이번 강연에서 동물생명공학에 어떻게 AI(인공지능)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AI를 개발할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직접 개발하신 AI agent를 예시로 들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현재 개발 중인 앱 'ChatVet'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ChatVet'은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를 수의사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의학 분야 특화 AI입니다. 교수님께서 이러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방대하고 표준화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수의학 분야는 인간 의학처럼 획일화된 전자 차트가 존재하지 않아 상당히 제한적이고 비표준화된 데이터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동물은 종마다 대사 과정이나 질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적용된 AI보다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의 위험이 크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수님은 RAG와 multi-agent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RAG는 AI가 입력받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의 데이터도 이용하여 답변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수의학 분야와 같이 정제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multi-agent는 인공지능을 분업화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single-agent에 비해 과부하의 가능성이 작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280개라는 한정된 데이터의 수로도 과부하, 과적합 등의 문제가 없이 평균적인 수의사 이상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AI를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표준화된 데이터가 부족할 때 합성데

이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합성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만든 가상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합성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면 이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계적 서플링, 생성형 시뮬레이션, 자료의 종류에 따른 분류 등의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이번 특강은 AI와 동물생명공학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분야임을 설명하는 동시에, 동물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식의 기법으로 AI를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주로 수의학 분야의 AI를 위주로 설명하셨지만, '축산과 같은 다른 분야에는 AI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어경준 책임연구원님

- 동물모델 기반 우주환경 생식 가능성 평가 플랫폼 개발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어경준 책임연구원님은 이번 강연에서 우주 환경이 생명체의 발생과 생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류가 장기적으로 우주에 거주하기 위해 어떤 생명과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실제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연구원님께서 최근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탐사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NASA의 Moon to Mars 프로젝트와 SpaceX의 화성 이주 계획처럼 현재 우주 개발은 단순히 달이나 화성을 방문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이 장기간 체류하며 세대를 이어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인류가 우주에서도 정상적으로 생식하고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주 환경은 지구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생명체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특히 미세중력과 우주 방사선이 초기 배아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미세중력 환경에서는 세포 신호전달 체계와 세포골격 구조가 교란되어 정상적인 배아 발달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우주 방사선은 DNA 이중 나선 절단이나 돌연변이를 유발하여 유전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우주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수행되었습니다. 중국의 SJ-10 위성 실험에서는 마우스 초기 배아를 우주로 보내 배양하였는데, 일부는 배반포까지 발달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전체적인 발달 효율은 감소하고 DNA 손상 및 후성유전학적 변화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일본 ISS 실험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냉동 마우스 배아를 배양하였는데, 미세중력 하에서도 ICM, TE가 형성되어 중력이 초기 배아 분화의 결정적 요인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연구원님께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미세중력 유사 환경 실험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돼지 수정란을 이용한 실험 결과, 미세중력 환경에서는 배반포 크기와 세포 수가 감소하였고, 활성산소 및 세포 사멸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태반으로 분화하는 TE 세포는 감소하고 실제 태아가 되는 ICM 세포 비율은 증가하는 등 정상적인 분화 과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연구원님께서 현재 우주 생명과학 연구가 단순한 생물학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공학과 데이터과학, AI 기술이 함께 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연구팀은 바이오 캐비닛, 실시간 영상 분석 시스템,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결합한 '우주 생명 프런티어 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 환경에서 인간 배아 모델을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우주 거주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특강은 단순히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넘어, 인류가 우주에서 세대를 이어 살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생명과학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보여준 강연이었습니다. 또한 생명과학이 우주공학, AI, 데이터과학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우주 시대에는 다양한 학문 간 융합 연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

습니다.

4. 학생 발표 경진대회

다음 순서로는 학생 발표 경진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10명의 학생이 세 팀으로 나뉘어 <가축 전염병 확산 현황 및 백신 개발의 필요성>, <식이 조절을 통한 경제 동물에서의 Metabolic reprogramming 기전 및 활용>, <기후 변화에 따른 소의 열 스트레스 극복 방법과 국내 육종의 향후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팀은 창의적인 팀명과 함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내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발표 주제 선정 배경과 팀명에 담긴 의미, 발표 준비 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발표를 준비하며 느낀 아쉬운 점과 보완하고 싶은 부분, 나아가 향후 참여할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까지 공유하며, 이번 경진대회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1) 구제불능 (23학번 추채윤, 24학번 서지현, 유혜인)

- 가축 전염병 확산 현황 및 백신 개발의 필요성



구제불능팀은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 전염병이 최근 다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가축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방역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백신 개발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은 접종하더라도 모든 혈청형을 완벽하게 방어하기 어렵고 효율에도 한계가 있다는 발표 내용에서 착안해 '구제불능'이라는 팀명을 정했습니다.

구제불능팀은 먼저 큰 주제와 핵심 키워드를 함께 정하고 역할을 나누어 각자 논문과 자료를 조사한 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토론하며 발표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발표에서는 ASF와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의 확산 현황과 기존 방역 시스템의 한계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후 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 연구 사례들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앞으로 가축 전염병 대응 방식이 단순한 살처분이나 일시적인 방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백신 개발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역 체계와 백신 개발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동물생명공학전공 학생들에게 백신이 가축 전염병 방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달하고자 하였고, 우리 전공 분야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구제불능팀은 주제 선정부터 팀명 결정, 자료 조사와 발표 준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무사히 발표를 마칠 수 있어서 만족한다는 소감도 전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더 높은 완성도의 발표를 해보고 싶다는 소감도 함께 남겼습니다. 또한 국담 활동은 전공수업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전공 공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공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전공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논문과 자료를 읽으며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 흐름을 구성하는 경험은 이후 전공수업이나 발표 과제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2) MR 커주세요 (22학번 김진욱, 정건용, 25학번 김현준, 이서연)

- 식이 조절을 통한 경제 동물에서의 Metabolic reprogramming 기전 및 활용



MR 커주세요팀은 국담 학생 발표 경진대회에 참여함에 있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질문을 던진 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최대한 의미 있게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원들의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 영양 면역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현상이나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양 조절을 통해 면역계의 metabolic reprogramming이 유도되는 기전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하였습니다. 팀명은 발표의 핵심 개념인 metabolic reprogramming의 약자인 'MR'과 음악 반주를 의미하는 'MR'을 연결해 만든 이름이라고 밝혔으며, 유머 요소를 통해 발표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어 팀명과 발표 연출 방향을 정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은 각자 논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한 뒤 함께 토론하며 발표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논문마다 실험 방식과 해석이 달라 추가적인 배경지식을 공부해야 했고, 실제 축산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며 발표 자료를 완성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는 가축에서 영양 및 사료 첨가제로 유도되는 metabolic reprogramming이 면역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AMPK와 mTOR pathway를 중심으로 한 대사 재프로그래밍의 기본 기전을 설명하고, 이것이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분화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소개했습니다. 이후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여 Metformin, Fangchinoline, Pterostilbene, Glutamine, Baicalein과 같은 물질들이 면역 반응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down-regulation과 up-regulation으로 나누어 면역 억제와 면역 활성화 방향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했습니다. 발표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단순히 '좋은 사료를 먹이면 면역이 좋아진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료 첨가제가 실제로 metabolic reprogramming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면역 반응 자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발표를 준비하면서 AMPK와 mTOR pathway가 면역 반응의 방향성과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전이라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고 ASFV 관련 연구처럼 특정 pathway를 억제함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상 깊게 살펴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면역 조절과 질병 예방까지 고려한 기능성 사료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MR 쳐주세요팀은 발표를 준비하며 하나의 '실험 없는 연구'라고 생각하며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준비 기간 대부분을 논문 해석과 토론에 할애했고, 이를 통해 전공 수업에서 배운 개념과 실험 기법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업 자료를 넘어서는 심화 개념과 최신 연구 동향까지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 대한 전공지식을 훨씬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어떤 논문이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과, 논문을 정확히 읽고 핵심을 이해하는 독해력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능력은 이후 고학년 전공 수업이나 연구 활동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1, 2학년 학생들이 이러한 기본기를 길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국담 발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는 소감도 남겨주었습니다.

3) 더워죽겠소(24학번 박가현, 이찬, 허세희)

- 기후 변화에 따른 소의 열 스트레스 극복 방법과 국내 육종의 향후 방향성



더워죽겠소팀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축산업에서 소의 열 스트레스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발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차양막, 송풍기, 물 분사 같은 단기적인 해결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는 전기 에너지 사용 증가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소 자체의 내열성을 높이는 육종과 유전자 선발 방향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열 스트레스에 강한 형질을 가진 개체를 선발한다면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미래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팀명인 '더워죽겠소'는 '더워 죽겠다'라는 표현과 소를 의미하는 '소'를 결합해 만든 이름으로 발표 주제를 직관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고민하다가 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기후 변화와 축산 문제를 조금 더 친근하게 전달하고, 발표에 대한 관심과 몰입도를 높이고

싶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더워죽겠소팀은 인간뿐만 아니라 소 역시 더위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학생들이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육종 및 유전자 선발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도 소개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팀원들과 좀 회의를 하며 발표 방향을 정했고, 각자 논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며 발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먼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소의 열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열 스트레스가 소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육종 및 유전자 선발 방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특히 열 스트레스를 받으면 HSP70, HSP90과 같은 Heat Shock Protein의 발현이 증가하여 변성된 단백질을 복구하고 안정화한다는 점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열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면역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이후 해결 방안으로 PRLR 유전자 편집과 서로 다른 품종 간 교배를 통한 열 내성 향상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열 내성만 높이는 방식은 한국의 겨울 기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열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능력이 높은 소를 육종하는 방향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원하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관련 연구가 오래된 경우도 있었고, 최근 연구는 아직 데이터와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논문마다 결과와 해석이 조금씩 달라 여러 연구를 비교하며 내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경 지식도 새롭게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발표 방향이 중간에 여러 번 수정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최신 연구를 폭넓게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더워죽겠소팀은 이번 국담 발표 활동이 앞으로의 전공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자과의 전공 분야는 새로운 기술과 연구가 계속 등장하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업 내용만 배우는 것보다 최신 연구와 실제 적용 사례를 직접 찾아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논문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여러 연구 결과를 비교하며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준비하며 발표 실력과 전달 능력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5. 간친회

학생 발표 경진대회를 끝으로 간친회가 이어졌습니다. 간친회는 서울대학교 식당 락구정에서 진행되었으며, 교수님들과 학부생, 대학원생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중에는 학생 발표 경진대회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최우수상은 <기후변화에 따른 소의 열 스트레스 극복 방법과 국내 육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 더위죽갯소팀이 수상하였습니다. 식사 중 경품 추첨이 진행되어 다양한 경품이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국담 행사는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동시에 다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농농유치원(농업생명과학대학 체육대회)



2026.05.05. 서울대학교 대운동장

따사로운 5월의 햇살이 캠퍼스를 포근하게 감싸던 어린이 날, 농생대에서는 학생들의 열정과 웃음이 가득한 체육대회, '농농유치원'이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전부터 곳곳에서는 기대에 찬 이야기들이 오갔고, 많은 학생이 설렘을 안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과제와 중간고사로 인해 지쳐 있던 학생들에게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동심을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단과대 단위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평소 접점이 많지 않았던 타 학과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같은 병아리 반이었던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학생들과 경기 전후로 함께 전략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친목을 다지는 과정 속에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낯설었던 관계가 점차 가까워지고, 함께 웃고 아쉬워했던 경험은 이번 체육대회의 또 다른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린 것은 남자 농구 결승전이었습니다. 경기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학생들이 모여 열띤 응원을 보냈고, 선수들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듯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비록 우리 학부는 준결승에서 식물생산과학부에 32:16으로 패해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여준 투지와 팀워크에 학부생들은 박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결과와는 별개로, 코트 위에서 흘린 그들의 땀과 열정은 충분히 빛났습니다.

같은 시간 진행된 좌식 배드민턴 경기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병아리 반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경기장은 한층 더 뜨거운 분위기로 달아올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어진 랠리와 한 점, 한 점을 향한 집중력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지개 반에 11:10으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진 접전은 그 자체로 매우 값진 경기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남녀 피구 경기 또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남자 피구는 아쉽게도 예선에서 탈락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여자 피구는 뛰어난 경기력으로 결승까지 진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26학번 윤주현 학생은 경기 내내 적극적인 플레이와 뛰어난 판단력으로 경기를 이끌었으며,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출전한 선수였기 때문에 학부생들의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결승전에서는 햇님 반을 상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아쉽게 패배해 준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족구 경기 역시 이번 체육대회의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습니다. 네 명의 선수가 보여준 안정적인 팀워크와 뛰어난 실력은 경기 내내 빛을 발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응용생물화학부를 상대로 경기를 펼쳤으나 11:4로 패배하며 준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아쉬운 결과였지만, 선수들이 보여준 집중력과 협동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편, 접시 콘 가져오기 경기에서는 병아리 반이 4위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참여한 학생들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된 후, 우리는 종합운동장이 내려다보이는 잔디밭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돛자리를 펼치고 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모습은 마치 학창 시절의 체육대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로의 경기를 이야기하며 웃고,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시간은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줄다리기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병아리 반은 힘을 모아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식물생산과학부와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하며 다음 단계로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뒤이어 진행된 판 뒤집기 경기에서는 병아리 반이 우승을 차지하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외치는 응원과 환호는 경기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미션 달리기에서도 병아리 반은 준우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달려야 하는 경기 특성상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연출되었고,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순수한 재미를 관중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육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할 계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또한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며 지친 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농생대 밴드부 매김소리의 보컬인 26학번 김한민 학생은 시원하고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으며, 관중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순간만큼은 경쟁의 긴장감도 잠시 잊고 모두 하나가 되어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또 한 번 기억에 깊게 남습니다.

마침내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계주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장은 각 팀을 응원하는 함성과 열기로 가득 찼으며, 선수들은 바통을 이어받으며 최선을 다해 트랙을 질주하였습니다. 응원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선수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소리는 운동장 전체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아리 반은 4위를 기록했으나,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과정은 그 어떤 결과보다 값진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경품 추첨이 이어졌습니다. 비록 우리 학과에서는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느껴졌던 기대감과 긴장감 또한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즐거운 순간들이 모여 체육대회의 여운을 더욱 길게 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루 동안 이어진 체육대회는 많은 웃음과 감동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일부 경기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만, 승패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어린 시절의 설렘과 순수한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이번 체육대회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동자



축산의 날



2026.05.09. 서울대학교 버들골풍산마당

5월 9일,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버들골에서 다양한 학번의 동자과 졸업생 및 학부생들이 모인 축산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동자과에서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축산의 날은 동자과에 대해 더 알아가고, 선배님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비록 아침부터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학부생들은 기대에 차 행사 소품들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졸업생들과 가족분들이 도착하자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과와 함께한 점심시간은 다양한 연령대의 선후배들이 서로 알아가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부생들은 졸업 후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아직 전공 진입을 하지 않은 신입생들은 동자과에 진입하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졸업생들에게는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하고 후배들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동자과의 밴드 동아리인 동요에서 준비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동요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등의 곡을 통해 관객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관객들은

무대 앞에 모여 후렴구를 따라 부르고 박수를 아끼지 않으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호응을 유도하고 무대를 이끄는 보컬의 능력이 빛났고, 완성도 높은 연주로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 기타리스트와 드러머 역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타리스트는 곡의 분위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섬세하면서도 힘 있는 연주를 선보였고, 드러머 역시 곡의 리듬을 안정감 있게 이끌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동요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공연은 축산의 날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주최 측이 준비한 체육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체육대회는 학부생과 졸업생, 선배님의 가족들까지 모두 함께 두 팀으로 나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5학번의 김다운, 이건호 학생이 MC를 맡아 한층 더 재미있게 행사를 이끌었습니다.

초반에는 판 뒤집기, 고깔 쓰고 걸어가기 등 각 팀에서 몇 명씩 참여하는 가벼운 게임들이 이어지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모두 각자의 팀을 응원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함께 게임에 참여하는 만큼 위험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참

가자들의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매 경기마다 이긴 팀의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며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더라도 서로 격려해 주고, 넘어질 뻔한 참가자를 바로 잡아주는 등 참가자들끼리 서로 돕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팀 전원이 참여하는 게임이 이어졌고 모두가 참여하는 만큼 다들 더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풍선 탑 쌓기 게임은 풍선을 불고 비닐에 채워서 탑을 더 높이 쌓은 팀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풍선을 부는 사람과 묶는 사람, 채우는 사람으로 할 일을 분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게임 중 상대 팀의 풍선을 가져가려는 시도로 웃음을 자아내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하며 팀원끼리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체육대회의 꽃인 계주였습니다. 각 팀에서 참여자를 뽑았는데, 단순히 달리기가 빠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학부생과 어린이를 섞어 선발해 경기를 진행하며 체육대회의 목표가 승리가 아닌 친교와 화합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모든 참가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난 이후, 상품권과 경품의 추첨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번호표를 들고 추첨 결과를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설레는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주최 측이 감사의 의미로 준비한 상품과 음식도 나눠 받으며 축산의 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축산의 날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동자와 구성원들이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가족들까지 함께 어울려 웃고 이야기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따뜻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져 동자와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전통으로 남기를 기대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동자



동자 MT



2026.05.22.-23. 대성리 건아들펜션

봄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5월 22일과 23일, 동물생명공학전공 학부생들과 신입생들을 포함한 총 65명이 다 함께 대성리로 동자와 총 MT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다려 온 MT인 만큼 출발하기 전부터 모두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선발대로 먼저 도착한 학생들은 짐을 풀고 숙소 앞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족구장에서 족구도 하며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놀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후발대 인원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어느덧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으로는 삼겹살과 목살, 소시지, 버섯을 구워 먹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앞다투어 고기 굽는 일을 자처했고, 고기를 굽는 사람에게 쌈을 싸 주는 등 서로를 향한 배려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모두 주린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고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은 후에는 숙소 거실에 모여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각 조는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기 전, 구호를 정하고 1등을 향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엠준위 레크리에이션팀은 시가 말하는 가사를 듣고 노래 맞추기, 텔레파시 게임, 박수 게임, 릴레이 댄스 맞추기, 릴레이 게

임까지 다양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며 레크리에이션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 끝난 후,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다시 거실에 모여 두 번째 프로그램인 주루마블을 진행했습니다. 엠준위 주루마블팀이 과방에서 주루마블을 열심히 제작해 준 덕분에 더욱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루마블을 마무리한 뒤에는 삼삼오오 둥글게 모여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가는 이야기 속에 분위기는 무르익고 동자와 선후배들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족구, 술 게임, 불꽃놀이 등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만큼 즐거운 추억과 이야깃거리를 남긴 동자와 총 MT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MT는 새내기들부터 선배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어질 동자 MT가 모든 동자와 학부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진으로 보는 동자



인터뷰

한재용 교수님 인터뷰



2026.06.20. (왼쪽부터) 민채울, 한재용 교수님, 최서윤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 한재용입니다. 저는 80학번으로 서울대학교 본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1학년 때는 관악 캠퍼스 기숙사에서 지냈고, 2학년부서는 수원 캠퍼스(당시 농과대학)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치열했던 학생운동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시절 대학가에 낭만이 있지는 않았지만, 학생으로서 할 일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1991년에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동물생명공학 분야의 교수로 자리하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오셨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제가 닭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학부 4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학년 때 과 대표를 마치고 진로를 고민하던 무렵, 오봉국 교수님께서 여름방학 전에 '전국 대학생 논문

경연 대회'에 나가 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닭을 주제로 한 논문을 작성해 경상대학교에 가서 발표했고, 이 경험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대학원까지 진학해 오봉국 교수님 지도하에 닭 육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자생물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부임하시고 관련 강의가 개설되는 등 새로운 학문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였던 분자생물학과 DNA 연구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 분야를 더 배우고 싶다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 연구에 뜻을 펼쳐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준비 과정에서 다행히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미네소타 대학교와 연이 닿았습니다. 당시 미국 유학은 몇 년 치 학비를 미리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미네소타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한 학기 정도 함께 연구해 보고 결정하자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석사 졸업 후 운 좋게 석사장교 복무를 마치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인간 유전학을 전공하신 지도교수님 밑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후 박사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최종 심사를 통과한 뒤, 마침

모교에 새로운 연구 포지션이 열리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1991년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동물유전학 및 실험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며,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사회에서 유전학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도 과거에는 양수 검사를 주로 했지만, 이제는 산모의 피만 약간 뽑아도 혈액 속에 떠다니는 태아의 세포와 DNA를 분석하여 수백 가지의 유전 질환을 판별해냅니다. 이처럼 유전학이 중요한 이유는 DNA가 모든 생명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체가 종족을 번식하고 자손을 남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DNA를 물려주는 과정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어떤 DNA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형질은 물론 성격까지도 결정됩니다. 제 수업에서는 이처럼 생명의 근원인 DNA의 원리와 유전의 섭리를 배우게 됩니다.

나아가 동물생명공학 분야에서 유전학은 동물 육종을 위해 활용됩니다. 과거의 육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을 보고 개체를 선발하여 교배한 뒤, 부모의 유전력이 자손에게 얼마나 전달될지 예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NPL나 GWAS 같은 분석 기술을 통해 어떤 개체가 실제로 우수한 유전자를 품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발과 교배를 진행하면, 짧은 시간 안에 획기적인 유전적 개량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동물생명공학을 전공하시며 특히 조류 및 생식세포(PGC) 연구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초기 연구와 현재 연구 사이에 연구 방향이나 접근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한 뒤, 저는 조류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품종이나 형질전환 개체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포유류의 경우에는 난자의 핵에 유전자를 마이크로 인젝션하거나 체세포 복제(SCNT) 방식을 사용하지만, 조류는 발생학적 특성 때문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달걀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노른자가 워낙 커서 무언가를 주입하려 하면 쉽게 터질 수 있고, 현미경으로 관찰해도 표면이 반짝거려 핵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조류는 다정자 수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중 어떤 것이 실제 수정에 관여한 핵인지 구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한계를 넘기 위해 주목한 것이 바로 PGC였습니다. 1982년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진은 깃털 색이 다른 닭에서 PGC를 분리해 정상 배아에 이식했을 때, 이 세포들이 생식소로 잘 이동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보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PGC를 가지고 형질전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정은 힘들었죠. 유전자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 여덟 시간씩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염색체 이상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끝에, 저희 실험실은 이지셀 라인이라는 생식세포 라인을 처음으로 구축했고, 2008년에는 세계 최초로 PGC 체외 배양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PGC를 체외에서 배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유전체를 편집하고, 원하는 세포만 선별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닭 배아에 썩은 PGC를 이식해 닭이 썩은 정자를 생산하게 만들고, 결국 닭을 대리모처럼 활용해 썩은 부화시키는 데 성공한 일입니다. 현재 PGC 이식 시스템은 멸종 위기 조류를 복원하고, 유용한 형질전환 가금류를 생산하는 데 이용됩니다.

PGC 기반 유전자 편집이나 형질전환 닭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산업적 의의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PGC를 활용한 조류 유전자 편집과 형질전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량 안보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새롭게 여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술은 앞으로의 식량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40% 이상)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만약 PGC 기술을 통해 더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전염병에도 강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닭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으므로, 친환경 축산의 가능성도 함께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류 PGC 연구는 국제기구가 고민하는 전 지구적 식량 문제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닭은 이제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생체 반응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PGC로 달걀을 통해 희귀 치료제나 유용한 고부가가치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달걀에서 얻은 여러 유효 성분들이 건강 보조제 등에 활용되고 있는

데, 앞으로는 특정 성분을 더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생식세포 기반 연구는 그 특성상 연구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 또한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공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연구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3R 원칙(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을 강조하는데, 이는 가능한 한 동물 사용을 줄이고, 더 정교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닭을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닭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인류에게 식품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존중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동물 윤리 측면에서도 IACUC(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허가받고, 정해진 절차에 맞게 실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달걀 부화 과정에서의 성 감별과 폐기 문제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부화 12일 이전까지만 달걀로 간주하고 이후에는 생명체로 보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1일 이전부터 자궁에 대한 뇌파 반응이 나타나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입니다. 한국 역시 앞으로 이러한 글로벌 윤리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보며, 연구 윤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자의 마음가짐에서 출발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PGC를 활용한 연구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기술적 어려움이나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류는 포유류에 비해 배아생식세포(PGC) 배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랫동안 닭에게서만 PGC 배양이 가능했는데, 최근에서야 로슬린 연구소(Roslin Institute)에서 거위 배양에 성공한 정도입니다. 이처럼 세포 배양 자체가 어렵고 유전자 도입 효율도 낮다 보니, 조류의 유전체 교정 기술은 아직 제한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연구 그룹도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PGC를 거치지 않고, 생체 내(in vivo)에서 직접 유전체를 교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연구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해외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BBC(Biotechnology for Bird Conservation, 조류 복원을 위한 생명공학)라는 세계적인 조류 복원 컨소시엄에 참여해 활동 중입니다. 이 컨소시엄에서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온라인 미팅을 통해 연구를 공유하고, 2년마다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합니다. 차기 미팅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며, 저 역시 준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 경험을 통해 연구자로서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끼신 부분과,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외 경험은 연구자의 시야를 넓히고 정보의 고립을 막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 국가에만 머무르면 정보 격차가 생겨 자연스럽게 정보가 늦어지고, 연구 흐름에서도 뒤처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연구 방향에 대한 감각도 훨씬 넓어집니다.

또한 각 나라의 연구 환경과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학문을 수행하는 방식 자체를 배우게 됩니다. 현재는 국내 연구 환경도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학위를 국내에서 취득하더라도, 포닥이나 단기 연수를 통해 해외 연구를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연구자로서의 폭은 분명히 넓어집니다.

교수님께서 오랜 시간 연구와 학문 활동을 이어오셨는데, 연구라는 과정은 때로는 불확실하고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꾸준히 연구를 지속해 오실 수 있었던 교수님만의 마음가짐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일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질문을 만들고, "이 주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며 주도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지지치 않습니다. 특히 세포나 PGC를 다루는 연구는 매일같이 세포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매우 고된 작업입니다. 주말에도 연구실을 지켜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세포는 항상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결과가 나왔을 때의 보람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의 실패와 반복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의 성취감이 그 모든 과정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의적인 연구를 하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발견은 기존 지식 위에 새로운 벽돌 한 장을 더 얹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석사 과정 동안 적어도 산봉우리 하나는 꼭 점령해라." 자신이 맡은 분야만큼은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할 정도로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서야 비로소 주변의 더 높은 봉우리가 보이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스노볼 효과입니다. 산 위에서 눈덩이를 굴릴 때, 처음부터 단단하고 크게 뭉쳐서 굴린 눈덩이는 내려갈수록 엄청난 부피로 불어납니다. 즉, 처음에 얼마나 단단한 기반을 쌓느냐에 따라 이후의 성장 속도와 규모가 달라질 것입니다. 젊은 시기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자신의 기반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단순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지는 결국 개인의 지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 앞으로 동물유전공학연구실에서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시는 연구 분야나 계획하고 계신 연구 방향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8월이면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지만 연구자로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제가 그동안 천착해 온 분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큼니다. 대표적으로 달걀 바이오리액터(Egg Bio-reactor) 연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론적으로 구상해 왔던 것들을 실제로 산업화해 인류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또 축산이 얼마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인지를 직접 증명해 보이는 것이 저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생명공학 또는 유전자 편집 형질전환 연구 분야에서 앞으로 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 연구 주제나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학부생들이 특히 주목하면 좋을 분야가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육종을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필수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돼지의 치명적인 질병인 PRRS(돼지 번식 호흡기 증후군)에 저항성을 갖는 품종이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제너스라는 회사가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해당 기술이 육종을 거쳐 소위 말하는 상업용 생산 라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이미 승인을 마쳤고, 지금 중국, 한국, 일본도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유전체 편집(Genome Editing) 기술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걸어가야 할 육종의 미래입니다. 기후 변화가 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가진 품종들이 50년 후에도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부 과학자들은 50년 후에는 지금의 품종들이 모두 다른 품종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래에 대비해 미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아프리카 고지대 닭들의 유전자를 전부 시퀀싱해서, heat stress와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벌써 치열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미 그 작업을 통해 유전자 수준에서 검증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Genome Editing 방법이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영국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정밀 육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이미 GMO는 우리 식량 체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전체 경작지의 20% 이상에서 GMO를 재배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두와 옥수수도 거의 70%가 GMO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부 유전자가 삽입되지 않는 에디팅 기술은 그와는 차별화된 안정성과 정밀함을 갖추고 있기에 인류의 식량 문제를 책임지고 설계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입니다.

아직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학부생들이 많은데 특히 동물생명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 생활 동안 어떤 경험과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연구 분야나 진로를 찾아가면 좋을지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 진로라는 것은 자기 가치관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설계하고 결정하기에 가장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주어진 업무에 매몰되기 쉽지만, 대학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터전이고 함께 고민할 동료들이 주변에 넘쳐나니까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학생들이

남은 대학 생활 동안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동물생명공학은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분야입니다. 단순히 눈앞의 일에 매몰되지 말고, 세계의 축산 시장을 설계하고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빌 게이츠와 같은 거시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합니다. UN이나 FAO 같은 국제기구에서 인류의 미래를 관리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스스로를 시각화해 보세요. 10년, 15년 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1년 단위로 스스로를 진단하며 정진한다면, 어느 순간 목표한 위치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 하나 잘 먹고 잘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미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종종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잘될 때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결과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고 본질적인 DNA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인성 자체가 여러분의 커다란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도 '어떻게 돈을 벌까'만을 고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키우고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법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순간 인생이 삭막해지고 인간이 누려야 할 정신적 풍요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뜻있는 일을 하면서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통장 잔고가 아닌, 타인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그들로 인해 얼마나 세상이 행복해졌느냐에서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이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가며 인생의 진정한 풍요를 누리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 교수님의 뒤를 이을 서울대학교 농생대 후배들에게 학문적 자세나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귀감이 될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큰 안목으로 생각하고 큰 꿈을 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되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정에 있는 로댕의 칼레의 시민들 동상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 시민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동상 속의 대표자들처럼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미션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학문은 인류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돈을 좇아 진로를 결정하지 말고, 학문을 통해 인류를 위해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고민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여러분이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단 하나의 발견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자신의 이상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옮겨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와 명예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반면 당장의 연봉이나 조건만을 좇아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겨 다니는 삶은 지나치게 단편적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와 함께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름의 인생관을 정립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큰 꿈을 실행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가진 가치를 키우고 이상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덧 세상을 움직이는 주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지홀딩스 직무별 인터뷰



2026.06.22. 이지홀딩스. (왼쪽부터) 김형우 선배님, 김우람 선배님, 신용진 선배님, 이해은 선배님, 양준현, 고솔비, 송준혁, 윤주현, 강동윤, 김다민, 김민제, 송희진

지난 6월 22일, 동자와 학부생들은 축산 분야의 선두 주자인 이지홀딩스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주고, 이지홀딩스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업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는 신용진, 김우람, 김형우, 이해은 선배님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생생한 실무 이야기까지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이 들려주셨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에는 선배님들께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미처 나누지 못한 회사 생활 이야기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편하게 주고받으며,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09학번 신용진 선배님]



(왼쪽부터) 김민제, 강동윤, 신용진 선배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선배님과 현재 이지홀딩스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물생명공학과 09학번으로, 2025년에 동물영양생화학실에서 석사 과정 동안 이유자돈의 칼슘 및 인 적정 비율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이지바이오 가족사에서 배합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양돈, 산란계, 육계, 오리, 닭 등 다양한 축종의 배합비 설계와 원료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합비 업무란 가축의 성장 단계와 목적에 맞춰 사료 원료를 조합하고, 필요 영양소를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단순히 원료를 섞는 것을 넘어, 연구개발팀(R&D)과 함께 에너지, 단백질, 미네랄 등의 영양소 수준을 설정하고 원료 가격, 품질, 공장 생산성, 현장 성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료 원가에서 원료와 배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막대하므로, 배합비는 회사의 원가 관리와 직결됩니다. 저희는 사료 회사와 농장을 동시에 운영하며 고객 농장에 사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료 회사의 수익과 농장의 품질 및 성적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는 것이 저희 배합비팀의 핵심 역할입니다. 제품관리팀의 구체적인 업무로는 전략적 배합비 운용 및 제품 설계 최적화, 제품 원재료비 관리 및 원가 절감, 원료 영양 성분 평가 정밀화 및 신규 원료/성분 업데이트, 배합비 프로그램 운용 및 효율화 등이 있습니다.

이지홀딩스가 글로벌 축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후배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지홀딩스의 가장 큰 강점과 기업 문화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지바이오의 가장 큰 강점은 축산업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 밸류체인을 아우른다는 점입니다. 사료 제조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관한 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보다 사료부터 농장, 축산물, 식품, 바이오 기술까지 연결하여 축산업 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다'라는 최고경영진의 비전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회사 소개서에 명시된 'Farm to Table'이라는 방향성 역시, 사료 사업을 통한 동물 건강 개선, 농장 부문의 생산성 향상, 식품 부문의 안전한 축산물 제공, 바이오 부문의 미래 기술(질병 예방, 기능성 소재) 준비 등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 측면에서는 현장, 실행, 문제 해결 중심의 성향이 강합니다. 축산업은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이므로 실제 농장, 공장, 원료 시장, 소비자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전공 지식을 실제 현장의 문제와 연계하여 사고하는 태도가 중시됩니다.

실제 배합비 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존 사료 베이스에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추가하는 테스트를 하실 때 최초의 대략적인 비율은 기존 선행 연구를 베이스로 잡고 시작하시는 건가요? 실제 테스트를 거치면서 최적의 비율을 찾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신규 기능성 원료를 테스트할 때는 직관에 의존해 사용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해당 원료의 도입 목적(경제성, 성장 개선, 장 건강 등)을 명확히 설정한 후, 곰팡이독소나 살모넬라 등 유해 성분이 사료관리법상 한계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1차로 검증합니다.

이후 선행 연구, 공급사 권장량, 유사 원료 사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NRC 기준이나 각국 사양표준 등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하며, 연구개발팀과의 논의를 거쳐 가축 성장에 가장 최적화된 수준을 설정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연구 농장에서 사양시험을 통해 원료의 가치를 직접 평가하기도 합니다.

초기 사용량이 설정되면 배합비 프로그램에 입력해 영양 성분 스펙을 맞춘 후, 실제 공장과 농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공정 라인에서의 원료 흐름성, 뭉침, 기호성, 설비 투입 가능 여부, 계량 오차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 배합 비율은 문헌적 근거에서 출발하되, 생산 테스트와 현장 반응, 원가 효과 등의 실제 데이터를 통해 최적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부 시절 전공수업이나 실험실 연구로 접하는 이상적인 영양소 비율과 사료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때의 현실적인 제조 사이에 간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합비 설계 시 이론적인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공장 생산 효율이나 현실적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학습하는 이상적인 영양소 요구량과 실제 공장의 대량 생산 환경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배합비 설계는 단순한 이론적 최적값이 아닌 영양, 원가, 품질, 공정, 현장성을 모두 충족하는 현실적인 최적점을 도출하는 작업입니다.

제품의 목표(축종, 성장 단계, 가격대, 성적 목표)를 명확히 한 뒤 영양소 기준을 설정하지만,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료의 품질 편차, 가격, 수급 안정성, 보관성, 공장 설비 및 투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양적 가치가 높아도 공장 투입이 어렵거나 흐름성이 불량하면 사용량을 제한해야 하며, 반대로 경제성이 뛰어난 원료라도 기호성이나 펠릿 품질 저하를 유발하면 최적 사용량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저희 배합비팀의 네 가지 핵심 고려 기준은 원가 경쟁력 확보 여부, 동물의 영양소 요구량 충족 및 성적 개선 가능성(이를 통한 사료 회사와 고객 농장의 가치 총합 증대), 현장에서의 성적 및 품질 문제 발생 여부, 공장에서의 안정적 생산 가능성입니다. 즉, 배합비 설계는 서류상 완벽한 숫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과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는 사료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선배님께서 현재 담당하고 계신 배합비 업무는 새로운 사료를 설계하는 일과 기존 사료를 보완하는 일 중 주로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나요?

저는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기존 제품을 보완하고 관리하는 비중이 더 큼니다. 사료는 단발성 제품이 아니므로 원료 가격 및 품질, 수급, 현장 반응 등의 변동에 따라 배합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옥수수, 소맥 등 주요 원료의 시장 가격 변동에 맞춰 재고 운송 및 사용량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원료 평가 역시 핵심 업무입니다. 성분 분석값을 문헌 및 자체 기준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합비 적용 값을 결정하며, 기존 경향과 편차가 클 경우 유관 부서와 협의해 사용 여부를 조정합니다. 원료 평가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수반되며, 연구 농장의 대사 시험이나 최신 문헌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양돈 사료의 대사에너지(ME)를 정미에너지(NE)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신제품 설계 시에는 연구개발 및 마케팅 부서와 협업하여 제품 콘셉트, 영양소 수준, 원가 등을 기획하고 사양시험 결과를 반영해 수정해 나갑니다. 직접 새로운 원료를 개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로서 저의 주된 역할은 신규 원료의 실제 사료 적용 가능성(사용량, 원가, 품질 안정성, 공정 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제품관리와 신제품 설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기존 제품 개선 과정이 신제품 설계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동물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한데, 선배님께서 수많은 선택지 중 이지홀딩스와 현 직무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학부 시절 동물영양학과 사료학을 수학하며 사료가 축산물 생산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영양 설계가 가축의 성장과 농가의 수익성에 직결된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지바이오는 축산업 전체를 깊이 있게 조망하며 사료, 농장, 식품,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는 기업이기에, 전공 지식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합비 직무를 택한 이유는 전공 지식과 산업적 판단력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영양소 수치를 맞추는 것을 넘어 원료 가격 및 품질, 소화율, 공정 조건, 현장 반응 등을 종합해 현실적인 최적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설계한 배합비 사료가 실제 공장의 제품과 농장의 성적으로 구현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전문성을 기르며 전공을 산업 현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지홀딩스와 같은 축산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선 대학 시절 어떤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필요한 자격증이나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인재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입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탄탄한 전공 지식입니다. 동물영양학, 사료학, 생리학, 미생물학, 통계, 실험 설계 등의 과목은 실무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특히 에너지, 단백질, 아미노산 등 영양소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처리 및 해석 능력이 요구됩니다. 배합비 실무에서는 원료 및 제품 분석값, 사양시험 결과, 생산 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평균값뿐만 아니라 분석치의 변이나 업체별 품질 차이를 파악해야 하므로 엑셀 활용 능력이 필수적이며, 통계 및 데

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장 감각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상적 조건과 달리 실제 산업에서는 원료 수급, 가격 변동, 공장 설비, 기호성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지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 폭넓게 진출해 있는 만큼, 외국어 능력을 갖추다면 업무 영역을 넓히고 역량을 발휘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학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꼭 경험해 봐야 할,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활동이나 특정 수업이 있으신가요?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로 돌아간다면 동물영양학, 통계 등 주요 전공과목을 실무와 연계하여 심도 있게 학습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현업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개념들이 폭넓게 쓰이므로, 단순 암기보다는 해당 개념이 실제 사료 설계나 농장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험실 경험이나 농장 실습을 적극 추천합니다. 가축의 섭취량이나 증체량 등을 직접 관찰하고 사양시험을 경험하면 영양학 이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해석 경험은 배합비 업무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논문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새로운 원료나 첨가제를 검토할 때는 공급사 자료에 의존하기보다 선행 연구, 실제 시험 결과,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지그룹의 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춰 원료 시장 동향, 해외 논문, 국제 학회 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어 자료를 읽는 데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12학번 김우람 선배님]



(왼쪽부터) 송희진, 김다민, 김우람 선배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선배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현재 이지홀딩스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이지바이오 해외사업부 첨가제팀에서 해외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지홀딩스 산하 이지바이오 그룹에 첨가제팀이 있으며 이 팀은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에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중 저는 해외 쪽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담당자가 나뉘어 있는데, 유럽은 Pathway UK라는 영국 팀이 담당하고, 중남미·북미 쪽은 Pathway USA라는 미국 팀이 별도로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을 담당합니다. 제 담당 국가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두바이, 그리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입니다. 해당 국가에 직접 방문해 이지바이오의 첨가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이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홀딩스가 글로벌 축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후배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지홀딩스의 가장 큰 강점과 기업 문화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지바이오의 가장 큰 강점은 축산 분야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과 지속적으로 축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지바이오는 첨가제를 직접 만들고, 국내 시장에서도 비교적 선구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해외 활동 역시 활발

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조직문화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분기마다 조직 문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쓰레기 수거 봉사 활동이나 요리 대회 등 조직문화 강화를 위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최종 계약까지 이어지려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은 정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B2C는 고객이 관심과 구매 의사를 보이면 비교적 빠르게 구매가 이루어지지만, B2B는 훨씬 복잡합니다. 구매 담당자, 현장 실무자, 대표, 부회장 등 관련된 여러 사람이 모두 제품의 필요성과 효과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해당 국가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등록과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등록 절차가 빠른 국가는 하루 이틀 만에 완료되기도 하지만, 말레이시아나 중국, 일본처럼 3년에서 5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 등록이 끝난 뒤에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6개월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기보다는 현지 대리점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을 살 때 대리점을 거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리점은 현지 고객을 찾고, 제품이 고객에게 필요한지 판단하며, 가격과 마진 구조를 조율합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제품 설명, 기술 지원, 가격 협의, 등록 서류, 고객 대응 등 전체 과정에 관여합니다.

국가별 축산 환경 차이가 영업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이어진 적이 있나요?

제가 담당하는 중동은 덥지만, 습한 더위가 아니라 건조한 더위입니다. 습식 사우나와 건식 사우나의 차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습한 더위가 사육 환경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중동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고 팬이나 환풍 시설을 잘 갖추면 사육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전기 사용 여건도 비교적 좋아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마다 사육하는 품종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계 회사들이 오랜 시간 유전적으로 개량해 온 품종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사육 방식 역시 종계 회사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먹이, 즉 사료 원료입니다. 옥수수나 대두박 가격이 오르면 현지에서 팜유박, 캐놀라박 같은 원료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다만 이러한 원료에는 항영양인자가 포함될 수 있어 소화율이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원료를 사용할 때는 기술적인 논의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 테스트를 이어가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동물생명공학 전공자가 사료·첨가제 해외 영업에서 갖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확실한 강점은 전공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제품과 산업에 대한 전공 지식이 없다면 고객이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고객이나 파트너들은 대부분 축산 관련 전공자이거나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분들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전공이 무엇인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축산을 전공했다고 말하면 그 때부터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같은 배경지식이 있다는 사실이 신뢰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입사 후 부족했다고 느낀 부분은 영어 자체보다 협상 능력이었습니다. 이와 전공자는 정답이 있고,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찾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협상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어디에 합의점을 만들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 대표급 인사를 만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가 사업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읽어내고 그에 맞춰 제안하는 경영적 관점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하루아침에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관련 콘텐츠를 보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물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한데, 선배님께서 수많은 선택지 중 이지홀딩스와 지금의 직무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축산 산업 안에서 정말 해외로 직접 나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지바이오가 직접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외사업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축산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해외 업무에 대한 희망이

함께 맞아떨어진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지홀딩스와 같은 축산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선 대학 시절 어떤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필요한 자격증이나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인재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특정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로는 'Think New', 'Share Value', 'Keep Challenge'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계속 도전하며, 자신이 가진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치는 어느 회사에서든 중요하게 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현실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게 관계를 맺어두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 선배, 동기들과 두루 관계를 만들어 두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축산업계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움직이는 부분이 큰 산업입니다. 전공 지식도 중요하지만, 업계 안에서 신뢰를 쌓고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태도도 큰 자산이 됩니다.

학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꼭 경험해 봐야 할,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활동이나 특정 수업이 있으신가요?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농장 체험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 때는 한 달 정도 농장에 가서 현장을 경험하고 보고서를 쓰는 1학점짜리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산업에 들어온 뒤에도 영업직이 아니라면 최종 현장인 농장을 직접 볼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학부 때 현장을 보고 오는 것과 보지 못한 채 업계에 들어오는 것은 차이가 큼니다. 혹시 지금 그 수업이 없어졌다면 교수님께 농장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거나, 아는 농장을 소개받아 경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명공학 쪽 실험실 수업도 추천합니다. 실험실 수업을 들으면 대학원 선배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실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원 진학을 고민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당시에는 학점 부담도 비교적 크지 않아 더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었습니다. 학부 시절에 가능한 한 현장과 연구실을 모두 경험해 보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판단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13학번 김형우 선배님]



(왼쪽부터) 송준혁, 윤주현, 김형우 선배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선배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현재 이지홀딩스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13학번 김형우입니다. 저는 현재 이지그룹의 지주회사인 이지홀딩스에서 원료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부 고학년 전공과목인 '사료학개론'을 듣지 않은 저학년 후배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부원료(부산물 원료), 동물성 원료(유지, 수지박 등)를 담당하여 구매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두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인 대두박, 유채씨의 부산물인 채종박(카놀라밀), 그리고 팜유 생산 후 생성되는 팜유박(팜추출박)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료의 핵심 단백질원 및 섬유질원이 되는 다양한 부산물 원료들을 해외에서 소싱하고 안전하게 수입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업무입니다.

이지홀딩스가 특히 '갇난 돼지 전문 사료 및 첨가제 솔루션' 분야에서 타사 대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지홀딩스의 가장 큰 강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 문화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지그룹의 가장 뚜렷한 강점은 첫째로 '규모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바잉 파워(Buying Power)'입니다. 우리 회사는 초기에 첨가제 비즈니스로 시작해 현재는 배합사료 산업 전반을 영위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사료 시장에서 농협을 제외한 민간 사료 회사만 놓고 본다면

면, 하림그룹에 이어 우리 이지그룹이 사료 생산 물량 기준으로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료 구매, 특히 해외 수입에 있어서 이 거대한 물량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경쟁사들이 원료를 1,000톤 단위로 구매할 때 우리는 10,000톤 단위로 대량 발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업체와의 단가 협상 시 훨씬 더 유리한 가격 조건을 이끌어내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탄탄한 수직 계열화와 글로벌 M&A를 통한 끊임 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축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연결한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시장 개척, 바이오 신사업, 투자 회사 인수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공격적인 M&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 문화 덕분에 우리 회사는 매우 젊고 경쟁력이 있으며,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챌린지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사료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역동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이지그룹의 독보적인 매력입니다.

사료 원료 구매는 대량 발주가 기준이기 때문에 구매 타 이밍과 단가 결정에 따른 손익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원료 구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렵거나 부담이 큰 순간은 언제인가요?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한 2019년부터 최근 몇 년간은 그야말로 글로벌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2019년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을 시작으로 2020년 초 코로나19, 그리고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연달아 터지며 최근에는 미국-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까지 발생했습니다. 10년 전 과거의 잔잔했던 시장과 달리 고환율, 곡물가 폭등, 글로벌 물류 체계 마비가 겹치며 구매 환경의 변동성이 극도로 심할 때가 가장 부담이 컸던 순간이었습니다. 원료는 크게 국내산 '내자 원료'와 수입산 '외자 원료'로 나뉘는데, 외자의 경우 주된 사료 원료인 옥수수, 대두박, 소맥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 업계에서는 '헤징(Hedging)'과 '베이스(Basis) 구매' 개념을 적극 활용합니다. '헤징'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외환(달러)의 상승/하락에 대비하여 시점을 지정해 미리 환전하여 확보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구매' 방식은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선물 가격을 제외한 가격들을 고정하고, 원하는 시점에 선물을 구매해 가격을 확정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기후 변화, 전쟁이나 질병 이슈처럼 원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외부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발생했을 때 구매 담당자는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응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이나 질병 같은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라니냐, 엘니뇨 등)나 금리, 환율 동향은 꾸준히 모니터링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구매 담당자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과거 중국 의존도가 큰 원료들의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원료로서는 인산칼슘, 소금, 아미노산 등이 있었고 현재는 타 국가 및 다양한 공급처 확보를 통해 의존도를 많이 줄여 추후에 발생할 이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수도 수급 이슈가 있었는데, 물류적으로 화물 차량이 가동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료/제품 운송사 역시 이에 대응하여 사전에 일정량의 요소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슈퍼 엘니뇨라는 뉴스 제목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의 어획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6년 상반기에는 더욱 악화되어 사료 원료로서 어분 가격은 연이은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자돈 사료/펫 사료 생산이 많은 저희는 원료 공급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대체 원료로서 다양한 원료들을 스터디함과 동시에 여러 공급업체와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 예상했던 원료 구매 업무와 실제로 근무해 보며 느낀 점에 차이가 있었나요? 특히 업무 방식, 산업에 대한 인식,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 측면에서 예상과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입사 전에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숫자를 계산하고 합리적인 물품을 골라 구매하는 정적인 이미지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거대한 벌크 화물 모선과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웅장한 광경을 직접 보고 나니, '내가 정말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핸들링하고 있었구나'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마음속에 따라왔습니다. 일반적인 구매와 달리 사료 원료 수입은 특별한 관세 규정과 까다로운 통관 절차가 얹혀 있어 무역학적 지식도 필수적입니다. 원료 구매의 3대 핵심 포인트는 원가 절감(저렴하게 사는 경쟁력), 스펙(성분/품질 기준 충족),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현업에는 무역학과나 경제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지만, 대신 우리 동물생명공학 전공자들은 사료 원료의 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막강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무역 실무와 시장을 읽는 분석력 위에 축산 전공자만의 사료 원료/생물학적 전문성을 접목해 축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역량입니다.

동물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한데, 선배님께서 수많은 선택지 중 이지홀딩스와 지금의 직무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9년 상반기 졸업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서울대학교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는 순수 바이오 분야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선배들을 만나면서 점차 현실적인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돈의 흐름'이나 '비즈니스 및 사업' 영역에 큰 흥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학부 졸업(학사) 후 석사 학위 없이 축산업계에서 진출할 수 있는 직무는 다소 한정적이었습니다. 주로 대세였던 사료 영업이나 배합비팀, 품질 관리, 생산 관리 정도가 선택지였는데 아주 강하게 끌리지는 않았죠. 바로 그때 03학번 과 선배님을 통해 '원료 구매'라는 부서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님께서 "구매는 네가 내리는 결정 하나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쌓은 경험은 나중에 네가 개인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니 꼭 도전해 보라"며 구매 직무가 가진 역동성과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핸들링하며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설 수 있다는 점에 깊이 매료되어 이지그룹의 원료 구매 직무를 선택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생명공학 전공자로서 구매 직무를 수행할 때, 전공 지식이 실제로 대외 협상이나 원료 퀄리티 분석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부 시절 전공 선택으로 배우는 '사료학개론'과 '영양학' 서적들은 지금도 회사 자리에서 가끔 펼쳐 볼 정도로 실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원료의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원료가 가축(돼지, 소, 닭)의 몸속에서 어떻게 대사되고 영양학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구매 규격 스펙이 왜 이렇게 설정되었는지를 아는 구매 담당자

는 서플라이어와의 협상이나 사내 유관 부서와의 소통에서 확실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이지홀딩스와 같은 축산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선 대학 시절 어떤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필요한 자격증이나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인재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회사 업무는 결코 혼자 할 수 없기에 '타 부서와의 소통 및 협업 역량(사회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매 직무는 내가 사 온 원료의 경제성을 시뮬레이션하고 배합 비율을 조정하는 배합비팀(영양실), 공장의 품질관리팀, 생산 현장 등 수많은 유관 부서와 매일 의견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꼭 경험해 봐야 할,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활동이나 특정 수업이 있으신가요?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체육 수업을 11~12개나 들었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깊이 사귀었습니다. 수영, 골프, 테니스, 탁구, 양궁 등 대학생 때 배워둔 운동들은 사회에 나와서 평생의 소중한 취미이자 훌륭한 네트워킹 자산이 됩니다. 또한 대학 시절에 전공 공부에만 갇혀 있기보다 조별 과제나 팀 프로젝트가 많은 수업(인간관계의 심리학 등)을 적극적으로 들으며 미대, 음대, 공대, 인문대 등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조율 능력을 기르시길 추천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졸업 후 사회에 나오면 나의 인간관계와 활동 영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아집니다. 학점 관리에 대한 압박이 크겠지만, 대학교에 있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게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동아리 활동(중앙동아리, 과 동아리 등)도 치열하게 해보고, 연애도 뜨겁게 많이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치열하게 돌아보세요. 대학 시절에 쌓은 다채로운 인간 경험과 추억들이 결국 사회에 나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13학번 이해은 선배님]



(왼쪽부터) 양준현, 이해은 선배님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선배님과 현재 이지홀딩스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13학번 이해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출용 사료첨가제의 품질 보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E:qual Team이라고도 불리는데, 동일한 가치를 고객에게 동일한 제품을 통해서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해외 국가에 제출하는 품질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타 부서에서 보내주는 현장 데이터와 연구소가 분석한 문서를 취합해 정리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중심이 됩니다.

이지홀딩스가 글로벌 축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후배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지홀딩스의 가장 큰 강점과 기업 문화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을 하나만 고르자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기업으로 성장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사업의 확장이 완료된 상태라면 회사에서 근무할 때 비슷한 업무만 계속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지바이오도 여러 회사를 꾸준히 인수하면서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사료 회사나 생명공학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고객과 기술을 접하고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에서도 매년 신제품을 다룬다 보니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새로운 사례를 매번 경험하며 업무 능력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첨가제는 기능성이 뛰어난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핵심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신제품이나 신규 원료를 보실 때 기능성 외에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물론 제품의 특징점도 중요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시간과 비용 같은 자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출고할 때는 매번 분석해서 검사해야 합니다. 제품의 성분이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직접 분석이 가능한 종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외부에 분석을 맡겨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샘플을 택배로 보내며 비용을 지불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해외 규제적으로도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국내 축산업에서는 허용된 성분이라도 해외에서는 아직 사료 첨가제로써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성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화 또는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축산 관련 법규에 해당 성분이 아직 추가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규제를 고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성분과 품질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담당자는 첨가제의 보관만큼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좁혀갈 때 어떤 지점부터 확인하시고 이를 해결해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팀에서 수출 첨가제의 품질 보증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제가 접하는 문제들은 이미 수출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최소 2주에서 길게는 1년 이후에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보통 고객의 끝단에서부터 파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에서 문제를 접했을 때는 이미 수출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보관하셨는지, 문제를 파악한 사람이 저희 지사 직원인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최종 고객인지,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먼저 파악하고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편입니다.

회사마다 본인들의 원료 및 제품 검사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제품의 품질이 이상한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느끼기에 청결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운송 과정에서 납품 일자에 대해 불만족스럽거나

나, 고객이 제품을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절한 보상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음 수출부터 개선하겠다는 조치를 전달하거나, 영업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 다른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학부 전공수업에서 첨가제의 기능이나 작용 원리를 배우지만 현장에서는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실제로 근무하시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실무는 이런 점이 다르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학교에서 배우는 사료 첨가제 내용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료 첨가제를 섭취해서 기르는 목적이 가축의 영양학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고 부족한 영양소는 첨가제로 채워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며 배웠던 사실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목적으로 첨가제를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탄가스 저감 등 친환경을 목적으로 하거나 원료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둔 제품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필수 성분의 범위보다도 회사에서 생각하는 가축을 효율적으로 기르는 데 필요한 성분의 범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축산, 친환경 축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축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이 제품을 먹으면 소화율이 올라가서 분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적어지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필요 성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영양학적 가치 외의 부분을 실무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동물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진로가 다양한데, 선배님께서 수많은 선택지 중 이지홀딩스와 지금의 직무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진로를 선택할 당시 단순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졸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빠른 졸업을 목표로 했습니다. 석사나 박사과정은 저와 안 맞는 것 같다고 느껴서 학부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성격과도, 진로와도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는 어떤 회사에서 근무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전공을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적응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당시 국담에서 진행한 회사 소개를 유심히 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지바이오란 기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를 먼저 지원했고 다행히 기회가 되어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있는 직무도 제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여 선택하였습니다. 품질 보증 업무는 현장에서 일하기보다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을 다뤘는데 이러한 점이 제 성격과 잘 맞았습니다.

이지홀딩스와 같은 축산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선 대학 시절 어떤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필요한 자격증이나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인재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축산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축산업 전공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이지바이오에서도 연구직은 축산업 전공을 선호하고, 저희 품질 보증 부서나 수출 부서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도 전공이 도움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전공에서 해당 부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배우오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익숙한 지점이 있습니다. 동물영양학, 기본적인 축산 용어 등 전공 시간에 배운 지식이 업무를 처음 익히거나 제품을 파악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필요한 역량을 꼽자면 저는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품 담당자라면 외국인 손님이 오셨을 때 저희 제품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때 전공 시간에 배운 용어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해외 고객에게 제품을 충분히 잘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학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꼭 경험해 봐야 할,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활동이나 특정 수업이 있으신가요?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회사나 대학원 연구실 등에서 인턴십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이나 부서에서 인턴을 하고 입사하신 분들을 보면서, 회사의 분위기나 업무 내용, 업무량 등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턴십 활동의 장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을 해보시는 것도 영어 회화 실력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합니다.

교환학생 인터뷰



2026.05.10. (왼쪽부터) 손민영, 변지민, 손현우, 이종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동물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24학번 손민영입니다. 2025년 8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미국 시애틀에 있는 University of Washington(워싱턴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원래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한 번쯤은 꼭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침 친척분들이 시애틀에 거주하고 계셨고, 워싱턴 대학교가 해양생명공학이나 컴퓨터공학 분야로도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 제가 평소 공부하던 분야와 다른 전공수업이나 교육 환경은 어떨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목적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시야를 넓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학점 관리입니다. 교환학생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학점이므로 1학년 때부터 성적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인 영어성적 준비입니다. 토플이나 아이엘츠 점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별 커트라인을 목표로 준비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은 지원동기 작성입니다. 단순히 '해외에 가고 싶다'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왜 해당 학교를 선택했는지, 가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미국, 그중에서도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교를 선택하셨나요?

토플 점수를 받은 뒤 지원 가능한 학교들을 비교했는데, 당시 제가 지원할 수 있었던 학교 중에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와 워싱턴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애틀에 친척분들이 계셔서 생활 면에서 안

정감을 느낄 수 있었고, 도시 분위기나 학교 커리큘럼도 저와 잘 맞을 것 같아 최종적으로 워싱턴 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먼저 학교 안에서는 영어 말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읽기나 문법 위주의 영어 교육을 주로 받다 보니, 머릿속으로는 문장이 생각나도 바로 영어로 말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먼저 생각한 뒤 영어로 바꿔 말하려다 보니 대화 속도가 느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물가가 가장 부담됐습니다. 시애틀 자체가 생활비가 높은 지역이라 외식을 한 번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햄버거 같은 간단한 음식도 가격이 비쌌고, 팁 문화까지 있어서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학기 초 교통비를 일정 금액 내면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해 줘서 교통 부분은 꽤 편리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기숙사 생활입니다. 워싱턴 대학교는 비슷한 전공 학생들을 같은 기숙사 구역에 배정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덕분에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같이 수업 자료를 공유하거나, 몇 주에 한 번씩 모여 놀기도 하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활동입니다. 학교 내 교환학생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는데, 시애틀 시내 투어나 Mount Rainier 등산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쉽게 하지 못했을 경험들을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생활환경이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내가 진짜 해외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실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익숙한 한국 생활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한국 대학 수업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었나요?

한국에서는 PPT 분량이 많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 많은 반면, 미국에서는 PPT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교수님 설명이 훨씬 자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양 수업에서도 내용을 대충 넘어가지 않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분위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도 단순히 '시험 범위입니다' 수준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가이드라인과 자료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뒤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석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수업도 있었으며 시험 방식도 유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들었던 생리학 수업은 시험을 총 다섯 번 봤는데, 가장 낮은 점수 하나를 제외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초반 시험을 잘 보면 마지막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구조여서 시간 활용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단순히 수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나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해 많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3~4학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방학 동안 어떤 경험을 해볼까?' 같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대학 생활의 큰 방향성을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학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었나요?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 실력 자체도 많이 늘었지만, 특히 말하기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표현력이나 단어 선택이 자연스럽게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학점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1학년 때 성적을 잘 받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어려워지기 전에 최대한 기반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토플은 생각보다 너무 높은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부담을 지나치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2학년보다 3학년 때 가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음주 가능 연령이 한국보다 높아서, 제가 갔을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행사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가면 한국 학과 커리큘럼과 안 맞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전공 방향이 잡힌 뒤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내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대학생이 되면 누구나 하나쯤은 이루고 싶은 로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연애든, 연구 활동이든, 여행이든 무엇이든 좋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너무 미루지 말고 직접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 경험은 남고, 대학생 시기는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교환학생 오기를 잘했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미국에 도착한 직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진짜 해외에 와 있구나'라는 실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특히 개강 전에 미리 출국해 처음 며칠 동안 시차 적응도 하고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그 순간들이 아직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살아간다는 경험 자체가 정말 특별했습니다.



교환학생 이후 진로나 가치관의 변화도 있었나요?

진로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일정 관리나 계획을 정리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간단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여름에는 IST(학부 연구생) 랩 프로젝트에도 지원해 보고 싶고, 앞으로는 복수전공 수업도 더 열심히 들을 계획입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할지 대학원에 진학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석사 과정까지는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 연구생 인터뷰



2026.06.05. (왼쪽부터) 이예림, 이건호, 김아민, 허윤하

자기소개와 함께 활동하신 연구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생명공학전공 22학번 이예림입니다. 저는 동물성식품학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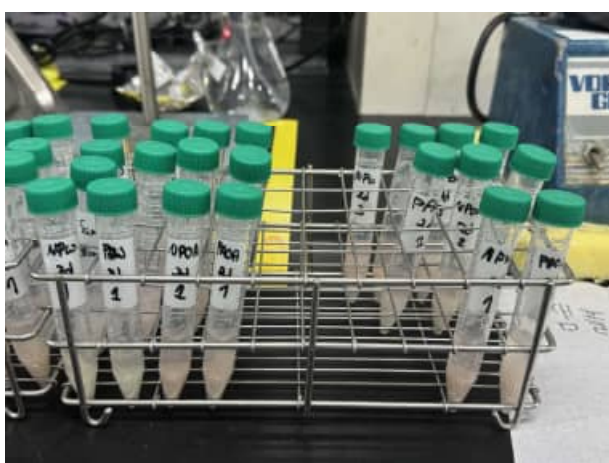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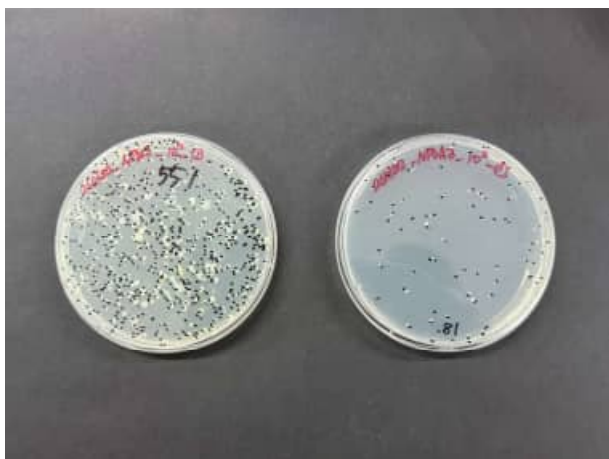
동물성식품학실은 인류의 주요 단백질원인 육류·유제품·난류 등 동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안전성 평가, 미래 식품 기술까지 폭넓게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현재 비열처리 식품 안전성 확보 기술, 근육 생물학 기반 배양육 생산, 동물성 식품의 저품질 및 풍미 분석, 천연 유래 기능성 물질 연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식품의 영양과 풍미를 유지하면서 유해 미생물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비열처리 기술을 선택하였습니다. 특히 평소 관심이 있던 저온 플라즈마(Cold Plasma) 기술을 직접 배우고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이 실제 육제품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해당 연구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부 연구생으로서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인가요?

학부 연구생은 주로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과제의 실험 과정에 참여하며 실험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 내용 상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제가 처음 맡았던 업무는 균주(stock) 관리였습니다. 식육 관련 실험에서는 살모넬라, 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같은 병원성 균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균주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균주는 -70°C 에서 보관되지만, 장기간 보관 시 변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균주 관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균주마다 필요한 배지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균에 적합한 배지를 직접 제조하고 계대배양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실험에 참여하며 여러 실험 기기와 장비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고,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연구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 연구생으로서 힘든 점과 보람찬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힘들다고 느낄 만한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니다. 연구실 구성원분들께서 학부 연구생과 인턴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해주셨고, 실험이 끝난 뒤에는 시원한 음료나 간식을 챙겨주시는 등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기에 연구실 생활을 즐겁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학부 연구생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연구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부분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질문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실험의 배경지식이 익숙하지 않아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정리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하면서 모르는 것을 숨기기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졸업논문을 준비하며 결과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감사하게도 동헌 박사님과 석준 사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어떤 후배에게 학부 연구생 활동을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실험을 직접 해보고 싶거나, 연구자로서 연구실에서의 일과가 궁금한 후배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실 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적인 연구실의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원이나 연구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몸소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연구에 관심이 있고 연구실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학부 연구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학부 연구생 활동이 졸업 후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학부 연구생이라는 경험이 직접적으로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구실에서 했던 일과 관련된 직무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지원 과정에서 학부 연구생 경험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연결해 자신을 어필할 수는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연구실로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학부생 시절 쌓은 학부 연구생 경험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험실에서의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나요?

저를 포함해 동물성식품학실 인턴이 5명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가축들』을 인턴 모두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책 앞쪽에 교수님께서 직접 사인까지 해주셨습니다. 평소에도 교수님께서 워낙 학부 연구생과 인턴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의외의 일은 아니었지만, 인턴 한 명 한 명 모두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cell counting을 하려고 잠시 연구실에 들렀는데, 동헌 박사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셔서 아주 든든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자과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선후배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과 정기적인 교류가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자와 사람들이라면 모두 축산의 날이나 축산의 밤에 한 번씩은 참여해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면 항상 배불리 두 손 가득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축산의 날은 행사를 준비하며 과 사람들과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서 동기들과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새내기 때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새내기 때 버들골에서 봄 축제 폐막제를 즐기기 위해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갔던 기억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워너, 기리보이 등의 공연을 즐기고 선선한 밤공기에 다 같이 노래를 따라 불렀던 것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보니, 새내기 때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두는 게 나중에 본인에게도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입학한 새내기들이 꼭 했으면 하는 활동이 있나요?

낭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밴드 동아리를 추천드립니다. 제 주변 동기들을 보면 함께 밴드를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도 밴드 멤버들과 돈독하게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새내기 때는 시간적 여유도 많고, 무엇보다 체력도 좋을 때이니 동아리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고 좋은 기억들도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분명 그 기억들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기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침 저희 동자과에도 지난해 만들어진 과 밴드 동아리 '동요'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후배분들께는 새내기 때 선배님들께 최대한 법약을 많이 신청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약을 하며 학교생활이나 전공, 진로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을 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본인이 선배가 되었을 때 후배들에게 그 조언을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전공 수업을 들으며 조별 발표나 팀 활동을 통해 가까워질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내기 때부터 과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두면 대학 생활이 훨씬 든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행 속 한 조각

- 네 컷 만화(새내기의 첫 수강신청)



동물생명공학전공 동아리

동백



2025.12.29.~2026.02.09. 동백 7기

동백은 방학마다 운영되는 동자과의 유일한 학술 동아리입니다. 동백은 8주 동안 최신 실험 기법과 동자과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주 차에는 논문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 논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후 2주 차부터 4주 까지는 실험 기법 발표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이때 부원들은 개인이 하나의 실험 기법을 맡아 조사한 뒤 발표합니다. 발표 주제는 PCR이나 Electrophoresis처럼 익숙한 기법부터 Immunocytochemistry, Flow cytometry/FACS 등 비교적 심화된 실험 기법까지 다양하게 다룹니다.

이후 활동은 연구실 탐구와 중간발표, 최종 발표 준비로 이어집니다. 동백에서는 팀별로 하나의 연구실을 맡아 해당 연구실의 홈페이지와 논문을 살펴보고 연구실 탐구를 진행합니다. 팀은 보통 3~4명으로 구성되고, 지원 과정에서 받은 1지망, 2지망, 3지망 연구실 희망 조사를 바탕으로 배정됩니다. 첫 활동 시간에 각 팀과 담당 연구실이 발표되고, 이후 팀별로 연구실을 탐구하며 연구 주제를 구체화해 나갑니다.

먼저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연구실의 소개 글과 주요 연구 분야를 확인한 뒤, 팀별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며 큰 주제를 정리합니다. 이후 마인드맵을 바탕으로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 읽습니다. 활동이 진행될수록 논문을 더욱 꼼꼼히 분석하

며 최종 발표에서는 팀별로 정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게 됩니다.

동백 7기는 동물미생물학실, 동물영양생화학실, 동물번식학실, 동물발생학실, 총 4개 연구실의 주제를 탐구했습니다. 먼저 동물미생물학신팀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장-뇌 축 조절을 주제로 수명 연장, 아밀로이드 베타 조절, 혈청 분석, 쥐의 운동성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동물영양생화학신팀은 Copra Meal이나 Edible insect와 같은 대체 원료를 돼지 사료에 활용했을 때 사료 섭취 효율과 체중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동물번식학신팀은 Synthetic Embryo Modeling을 주제로 pluripotency 유지, Embryo model의 예시와 활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발생학신팀은 환경적 요인 조절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백에서는 8주간의 집중적인 활동을 통해 주제에 대한 탐구를 단순한 논문 요약에 그치지 않고, 연구실의 여러 자료를 연결해 하나의 연구 흐름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방학 동안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 보거나 전공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경험해 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동백 활동을 통해 학술적인 탐구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백 7기 활동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24학번 정해진 회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4학번 정해린]



2026.05.20. (왼쪽부터) 정해린, 문예은

동백이 방학 때만 활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백은 처음부터 방학 중에 활동하는 학술 동아리로 활동해 왔습니다. 학기 중에는 전공수업과 학교 공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방학이라는 시간을 활용해 동백 활동에 더 힘을 쏟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동안 짧지만 집중적으로 활동하면 논문을 읽고 연구실을 탐구하는 데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라는 점에서 활동 중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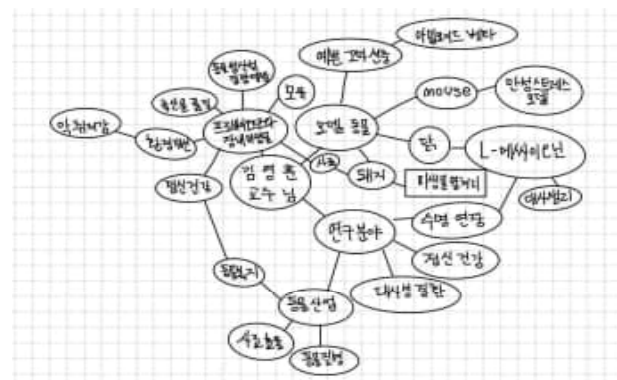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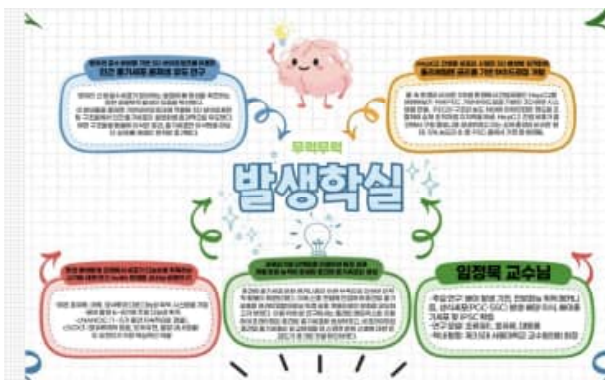
부원으로 활동할 때는 학술 동아리 활동이 처음이다 보니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전달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도 있었고, 선배들에게 피드백을 받은 뒤 다시 고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된 뒤에는 오히려 피드백을 주는 입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표 후 질문이 활발하게 나와야 부원들도 편하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들을 때 최대한 집중해서 메모하고 질문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적어도 한두 개씩 질문을 만들려고 했던 점이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동백 활동을 추천하시나요?

연구실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도 좋지만, 꼭 연구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는 학생만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을 읽는 과정이 궁금한 학생, 우리 과 연구실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는지 알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방학 동안 시간을 내어 한 주제에 집중해 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동백 활동을 통해 전공과 연구를 조금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동백



동요



2026.05.09. 서울대학교 벚꽃골풍산마당

작년 여름에 새롭게 만들어진 동자과의 유일한 밴드 동아리 '동요'는 학과 행사 및 공연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샌드페블즈, 파도와 함께 연합 공연을 열었고, 이번 축산의 날에도 공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학교생활 속 활력소가 되어주는 밴드 동아리 동요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1학번 김광명]



(왼쪽부터) 김광명, 이사야

인터뷰에는 21학번 김광명 학생과 22학번 김예원 학생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2학번 김예원]



(왼쪽부터) 김한민, 김예원

밴드 동아리 '동요'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동요는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동자과의 유일한 밴드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곡을 커버하며 공연하는 동아리입니다.

'동요'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동물생명공학의 '동'과 노래의 '요'를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동시에 어린 시절 동요를 부르던 순수한 마음처럼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통해 행복을 나누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동아리의 정체성과 분위기가 잘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겨울 공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공연 후반부로 갈수록 멤버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무대를 즐기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긴장보다는 즐거움이 무대를 채우기 시작했고, 관객들과도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공연을 만들어 가는 순간에 큰 감동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합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컬과 각 세션 간의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파트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리를 듣고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 낸 음악이야말로 합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산의 날 공연을 위해 어떤 노래들로 셋리스트를 구성하셨나요?

축산의 날 셋리스트는 '낭만고양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Don't Look Back in Anger', '하늘을 달리다', '그대에게' 순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관객의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대중적이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을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그대에게'는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산의 날 공연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교수님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선곡과 무대 구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이번 축산의 날 공연 준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분위기를 띄우는 것과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동요만의 공연이 아닌 다른 행사에 초대된 자리인 만큼 저희의 역할은 행사 참여자분들께 즐거움을 안겨드리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대중적이고 신나는 노래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또 보컬 두 분께 호흡 유도나 멘트 같은 부분에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요를 저희 과 분들과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만큼 저희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맞지 않거나 틀리는 부분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느낀 점이나, 연습 중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합주 시간을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축산의 날 공연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진행된 공연이라 다들 많이 바빠서 늦은 시간까지 연습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여자 보컬 없이 합주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남자 보컬인 은규가 '낭만고양이'를 원키로 사우팅하며 불러줘서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지난 정기공연이 끝난 후 한 관객분께서 저희가 공연할 때 행복해 보였다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훈훈해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축산의 날에 이어 여름 공연도 앞두고 계시는데, 어떤 공연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축산의 날과 같은 특별한 행사 외에도 방학마다 정기적으로 한 차례씩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정기 공연은 특히 동요 최초의 단독 공연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온전히 저희 동요 부원들이 꾸려 나갈 공연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공연의 곡 구성이나 계획에 대해 스포일러 하나 해주세요.

지난 공연에서는 밴드 음악 중심으로 구성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음악 취향을 가진 관객분들이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축산의 날부터 여름 공연까지 정말 활발히 활동 중이신데, 이런 밴드 활동이 힘든 전공 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요?

저희 전공 과목들은 재미있지만 로드가 정말 많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학기 내내 공부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매주 퀴즈 공부를 하느라고 카페를 거의 집처럼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이 반복적이고, 지루해져 번아웃도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밴드 활동이 어떻게 보면 숨구멍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밴드 활동에도 체력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실력이 늘고 합주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큰 뿌듯함과 만족감이 밀려옵니다. 또 합주 자체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요는 '동물생명공학과와 낭만을 지키는 동아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업으로 바쁜 일상에서도 음악을 통해 잠시 숨을 고르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함께 연주하고 공연을 준비하며 대학 생활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아리만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공연을 보러 올 관객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학번의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선후배 간의 거리도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주와 공연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도 동요만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연이 정말 재미있으니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저희 밴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동창



2026.05.21. 동창 11기

동창은 창업에 관심을 가진 동물생명공학전공 학생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실제 프로젝트로 연결해 보는 동아리로, 현재 11기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창에서는 창업의 기본기를 익히는 정규 활동과 실제 기업과 협업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합니다.

올해 동창이 진행한 대표적인 정규 활동 중 하나는 '7만원으로 창업하기' 프로젝트입니다. 재작년 8기에서 시도했던 'Mini Startup Challenge'를 이어받아, 팀별로 7만원의 초기 자금을 지원받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와 실제 판매 사이의 차이를 경험하고, 소비자가 무엇에 반응하는지, 가격이나 홍보 방식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동창은 창업 경진대회 준비 또한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올해 1월에는 회장과 동아리원 두 명이 함께 1박 2일 간 교내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R 피칭을 진행했습니다. 2학기에 열릴 다양한 창업 경진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며, 단순히 대회 참가에 그치지 않고 시장성이나 수익 구조, 소비자 분석 근거를 더 탄탄하게 준비해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창 11기는 진바이오텍과 함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반려동물 영양제 제품을 중심으로 마케팅과 소비자 반응 분석을 경험했고, 올해는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계획서 형태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과 함께하는 활동인 만큼 아이디어의 참신함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 시장성, 기업 입장에서 활용 가능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창의 활동은 창업을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조사하고 검증하여 정리해 보는 실전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동자와 학생이라면 동창 활동을 통해 기초적인 창업 개념부터 프로젝트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5학번 최수민 회장님, 25학번 김현준 부회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5학번 최수민, 김현준]



2026.05.20. (왼쪽부터) 김현준, 최수민, 박시현

올해 동아리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올해 동창의 가장 큰 목표는 동아리원들이 창업의 전체 흐름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누구에게 필요한지,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11기는 단순히 많은 활동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끝까지 발전시켜 보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소비자 분석, 사업 모델 구상, 발표와 피드백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창업을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실제 활동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7만 원으로 창업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입니다. 사실 처음 이 활동을 기획할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7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동아리원들이 '이걸로 무엇을 하지?'라고 느낄 수도 있고, 수익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활동을 시작하니 각 팀이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고민하고, 판매 방식이나 홍보 방법까지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처음에 가볍게 나온 아이디어가 회의를 거치면서 점점 현실적인 방향으로 구체화되는 과정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아리원들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 활동의 의미를 크게 느꼈습니다.

또 실제로 수익을 낸 팀이 나왔을 때도 기억에 남습니다. 금액 자체보다도 우리가 직접 기획한 것이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경험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작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준비한 활동에 동아리원들이 예상보다 더 진지하게 참여해 준 순간들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활동이 진행될수록 동아리원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서로 피드백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 동창이 단순히 회장단이 이끌어가는 동아리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동아리라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동창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창을 추천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창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평소에 느꼈던 불편함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문제를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창에서는 혼자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창업 경험이 없거나 발표, 사업계획서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활동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시장을 조사하는 법, 소비자의 반응을 생각하는 법,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법 등을 실제 활동 속에서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동물생명공학과 학생들에게는 전공과의 연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식품, 바이오, 헬스케어처럼 전공과 연결되는 분야의 아이디어도 다룰 수 있고, 꼭 전공 관련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제를 창업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창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아 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FC 동자



2026.05.30. FC 동자 홈커밍데이

2026년 5월 30일, FC 동자의 홈커밍데이가 기숙사 운동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FC 동자는 동자과의 축구 동아리로, 매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정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품생명공학전공의 축구 동아리인 1968과 함께 훈련하며, 때로는 다른 과와 연습 경기를 하거나 동아리원들끼리 기본 훈련을 진행하며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는 학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매 학기 홈커밍데이를 통해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커밍데이는 FC 동자의 주요 행사로, 졸업생 선배님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축구 경기를 하고 뒤편이를하며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는 두 달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었습니다. 선배님들과 날짜를 조율하고 운동장을 예약한 뒤,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참석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편이 장소를 예약하고 참석자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마련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홈커밍데이 경기에서도 선배님들의 축구 실력은 대단했고, 재학생 중에서는 25학번 최지욱 선수가 경기 내내 저돌적인 돌파를 선보이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뒤편이가 이어졌고, 선배님들의 값진 조언을 들으며

선후배가 격의 없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FC 동자는 다양한 행사와 경기, 훈련을 통해 부원들의 열정과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학장배 4강전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 골을 터뜨리기도 했고, 올해에는 비가 오는 날에도 훈련을 이어가며 꾸준히 운동장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FC 동자는 승패에만 집중하기보다 함께 뛰는 과정에서 팀워크를 다지고, 선후배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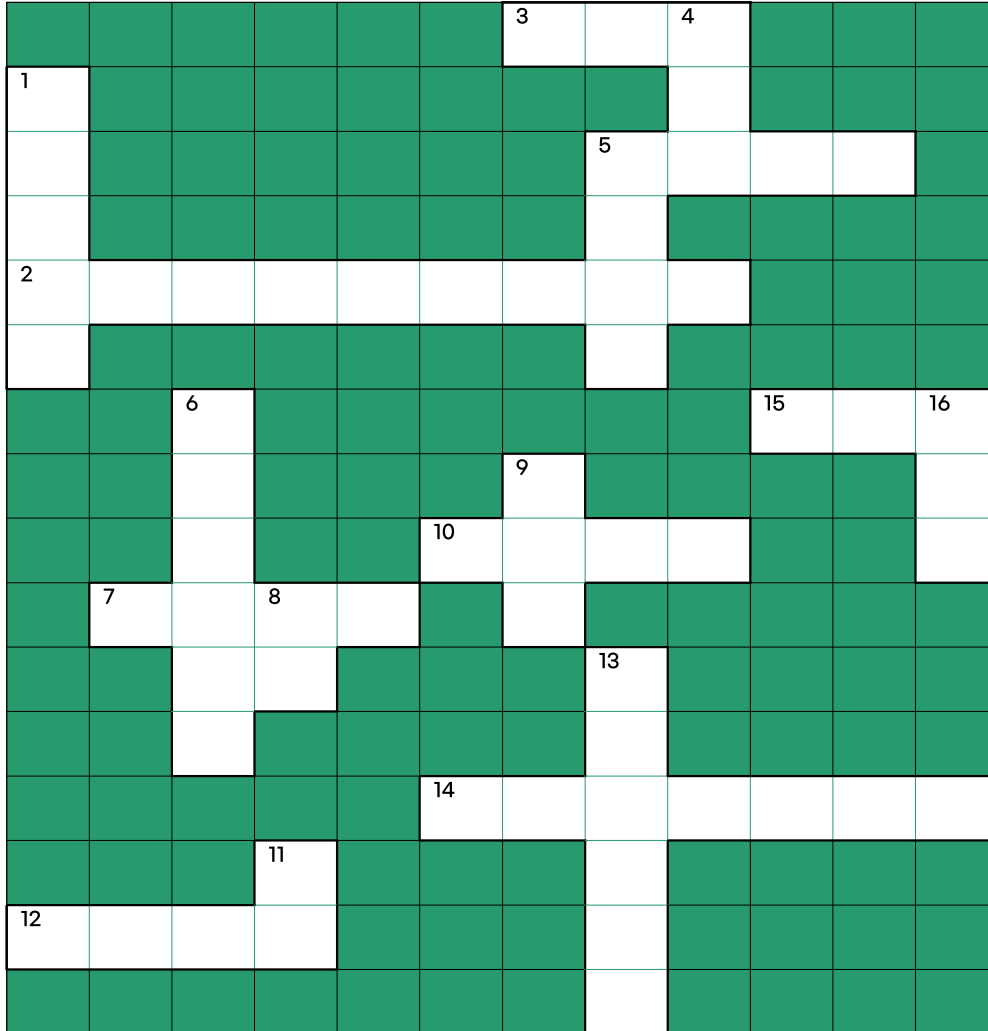
FC 동자는 앞으로도 농생대의 다른 과들과 연습 경기를 진행하며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른 아침 훈련에도 꾸준히 모여 공을 차고, 경기와 홈커밍데이를 통해 선후배 간의 관계를 이어가는 FC 동자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FC 동자



동행 속 한 조각 - 십자말풀이

동행 21호 곳곳에 숨겨진 정답을 찾아 십자말풀이를 완성해 보세요!



가로

2. 동물생명공학전공이 속한 학부의 명칭.
3. 농업생명과학대학 200동에서 동물생명공학전공이 사용하는 건물의 명칭.
5. 2026년에는 5월 9일에 진행되었으며 매년 1학기에 열리는 동자과 홈커밍데이 행사의 명칭.
7. 동물생명공학전공의 축구 동아리.
10. 식공과 동자가 2학년 때 함께 듣는 과목 중 하나. '내 다 버리다'라는 뜻도 있어 과방에서는 'OOXX OO 할까'라는 소리가 자주 들리곤 한다.
12. 농생대에 위치한 뷔페식 식당. 서울대학교 최고의 학식으로 자주 언급되곤 한다.
14. 모교 방문팀에서 방문한 최정빈 부원의 모교.
15. 맛집 탐방 소팀이 방문한 식당의 이름.

세로

1. 학생회관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학식의 이름.
4. 서울대학교의 상징과도 같은 산.
5. 동물생명공학전공의 전신인 학과의 명칭.
6. 이번 토크콘서트의 호스트인 김병훈 대표가 운영하는 기업의 영어 명칭.
8. 동물생명공학전공의 학술 동아리.
9. 동행 21호에서 동자과 행사팀과 맛집 탐방 소팀에 속해 있는 26학번 부원.
11. 동자과에서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재단. 매년 이 행사에서는 장학금 수여, 초청 연사 강연, 학생 발표,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된다.
13. 맛집 탐방 돼지팀이 방문한 식당의 이름.
16. 동행 21호의 부국장.

제3회 동행 토크콘서트

제3회 동행 토크콘서트



2026.06.25. 서울대학교 75동 김상진홀

동행 토크콘서트는 동물생명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초청해 학부 생활과 진로, 연구 및 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주식회사 '스페이스에프'의 김병훈 대표님께서 게스트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스페이스에프'는 세포 농업 기술과 배양육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입니다.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조직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도축 없이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배양육뿐만 아니라 세포 배양 식품의 산업화와 안전성 평가, 대량 생산 공정 등 미래 식량 기술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세종대학교 연구진 등과 협력하여 배양육 연구를 이어 오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등 국내 세포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25학번 박희원 학생이 진행을 맡아 1부 인터뷰와 2부 포스트잇 Q&A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 김병훈 대표님의 학부 시절, 커리어 전환, 창업 과정, 배양육 산업의 전망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습

니다. 이후 진행된 2부에서는 동행 부원들이 사전에 작성한 포스트잇 질문을 중심으로 배양육의 기술적 원리, 소비자 인식, 세포 농업의 미래, 창업과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배양육이라는 기술을 식량 안보와 산업화, 규제, 소비자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연구자의 태도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부 인터뷰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동행 토크콘서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스페이스에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훈입니다. '스페이스에프'는 배양육, 더 정확히 말하면 세포 배양 식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세종대학교 연구진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와 함께 출발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페이스에프'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에프'는 세포를 배양하여 식품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일반적인 고기는 동물을 사육하고 도축하여 얻지만, 배양육은 동물에게서 얻은 세포를 증식시키고 분화시켜 고기와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저희는 근육세포와 지방세포를 안정적으로 배양하고, 이를 식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배지, 지지체, 조직화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양육은 단순히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식량 안보, 환경 문제, 동물 윤리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식품 원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학부 시절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반도체 공정 설계 엔지니어로도 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공과 다소 달라 보이는 배양육 분야로 커리어를 전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 분야를 공부했고 이후 미국에서는 응용수학과 물리학, 천체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정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고, 이후 핀란드에서 MBA를 마친 뒤 식품 산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가 해온 일들이 서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이 과정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리학과 공학을 공부하면서 기술을 이해하는 훈련을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정과 대량 생산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식품 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식량 원료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양육이라는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이 기술이 지금은 낯설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큰 산업이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스페이스에프'를 창업하고 특히 배양육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품 산업에서 7~8년 정도 일하면서 수산물, 농산물, 육가공품 등 여러 식품 원료를 직접 다루어 보았습니다. 팔도 비빔면에 들어가는 고추장소스 원료의 상당 부분을 납품한 경험도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사업을 해보니 결국 대부분의 원료를 해외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조철훈 교수님의 대체 단백질 관련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물성 대체 단백질을 넘어서는 기술로 배양육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기술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말에 오히려 큰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직접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물었고, 마침 팀을 꾸리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배양육은 단순한 대체식품이 아니라 한국이 식량 기술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업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배양육이라는 개념 자체를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연구자나 전공자에게도 낯선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왜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부터 설득해야 했습니다.

다. 게다가 비교 대상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익숙하게 먹어 온 기존 고기였습니다. 초반에는 회사의 정체성과 제품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 과제를 통해 '인공 에코푸드'라는 방향이 제시되었고,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식량 문제에 도전하는 하나의 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적인 부분은 서울대학교와 여러 연구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했고, 저는 그 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사의 방향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배양육이라는 전문 기술 분야에 들어오셨습니다. 대표로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표가 모든 실험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대표라면 적어도 기술이 어디에서 막히고, 어떤 연구가 사업의 핵심이 되는지는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창업 이후 서울대학교 연구실과 과제 현장을 오가며 보고서 작성과 연구 기획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2020년부터 몇 년 동안은 거의 연구 현장에 출퇴근 하듯이 다녔고, 밤을 새우며 과제 준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되는 것보다, 전문가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이해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는 기술을 깊이 파고들고, 대표는 그 기술이 어떤 시장과 규제, 소비자 문제를 만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기술과 사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려면, 완전히 모르는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스페이스프'의 배양육 기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주로 배아줄기세포주를 바로 제품 생산에 사용한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기술의 앞단과 뒷단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하면 성체줄기세포나 근육세포, 지방 전구세포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들은 이미 어느 정도 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식을 반복하다 보면 노화가 진행되고 결국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아줄기세포에서 근육과 지방으

로 분화시키는 기술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제 시식회나 제품화 단계에서는 빠르게 세포를 얻어 생산하는 방식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세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증식시키는 앞단 기술과, 이를 먹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뒷단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배양육 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난관과 기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난관은 규제와 소비자입니다. 배양육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사례가 많지 않은 제품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가 승인되었고, 이후 미국에서도 관련 승인이 이루어졌지만, 각 나라의 규제 체계는 매우 다릅니다. 한국은 특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무겁게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세포 배양 식품이 한시적으로 식품 원료 인정 범주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실제 통과까지는 많은 자료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처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비임상 평가와 안전성 평가를 준비해 왔고, 이런 과정을 먼저 넘는 팀에게는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기후 변화와 가축 전염병, 원료 수급 불안정 같은 문제가 커질수록 기존 축산 방식만으로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배양육은 단순한 대체식품이 아니라 식량 안보의 한 축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배양육 산업의 전망과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배양육이 완전히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먹는 산업은 조금 만들어 보는 것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단가가 낮아지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존 신선육과 섞는 블렌디드 방식, 둘째는 식물성 대체 단백질

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셋째는 100% 배양육 제품입니다. 당장 소비자가 100% 배양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숙한 식품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후 생산 규모가 커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선택지는 더 넓어질 것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한 가지 방식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잘 못 견디는 편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관심사가 변하고,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데 흥미를 느낍니다. 누군가는 그런 길을 불안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문제에 접근하는 도구와 스타일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양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철훈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드는 태도가 결국 지금의 회사로 이어졌습니다. 창업은 거창한 확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붙잡고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멘탈 관리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히려 머리를 완전히 비우려고 합니다. 주말에 영화를 여러 편 연달아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라도 현업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운 뒤에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자료를 보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스타트업은 계속 선택해야 하는 일이 많고, 모든 선택에 완벽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복하는 방식이 있어야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시절 경험 중 창업이나 경영에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부 시절에는 미국에서 동물패 활동을 했습니다. 복을 치며 함께 공연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을 많이 배웠습니다. 같은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도 동행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에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과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잘 맞지 않는 사람과도 밥을 먹고 대화해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관을 접하는 경험은 나중에 연구를 하든, 창업을 하든 도움이 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태도와 역량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요?

요즘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형태와 역할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등장하면서 예전에는 여러 명이 나누어 하던 업무를 이제는 소수의 사람이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장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손이 많이 가는 일을 더 편하게 바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총무, 인사, 회계, 법무, 마케팅 등 회사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한 번이라도 이해하면 나중에 자신의 아이템을 사업으로 만들 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보입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서 초기 팀원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예전에도 지금도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무엇을 했고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분명하게 공유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대표로서는 각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문제를 보고 있는지 알아야 팀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은 조직 안에서 더 빨리 역할을 찾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회사일수록 혼자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연구도 사업도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포스트잇 Q&A



'스페이스에프'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스페이스에프'라는 이름은 2020년에 창업 멤버들이 모여 회사 이름을 고민하던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가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Food의 F를 붙여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SpaceX에 Food를 넣자'라는 의미로 'Space F'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름을 그렇게만 설명하면 다소 단순해 보일 수 있어서 이후에는 'Space'가 가진 공간의 의미와 미래 식량, 사람과 동물의 관계 등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의미를 다듬었습니다.

결국, '스페이스에프'라는 이름에는 기존의 식품 산업을 넘어 새로운 식량의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성이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양 과정에서 소태아혈청이 필요했던 이유와, 이를 대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포를 키우는 데 있어 소태아혈청, 즉 FBS는 매우 유용한 배양 성분입니다. 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여러 성장 인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배양육을 산업화하려면 FBS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태아혈청은 임신한 소의 태아에서 얻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배양육이 추구하는 동물 윤리의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산업적으로도 문제가 큼니다. FBS는 개체마다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야 할 때 세포가 항상 같은 조건에서 자라도록 만들기 어렵습니다.

생산 수율이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혈청 배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포 증식에 꼭 필요한 성분을 찾아내고 이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FBS의 모든 성분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성분을 중심으로 하나씩 대체해 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배양육'이라는 이름이 소비자에게 이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배양육을 표현할 때 '바이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는데, 먹는 것에 '바이오'라는 단어가 붙으면 소비자에게 더 낯설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세포 배양 식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게 된다면, 저희는 아마 별도의 이름을 만들어 사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새로운 식품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때는 너무 기술적인 이름보다, 그 제품 자체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카콜라가 하나의 제품명을 넘어 대명사처럼 쓰이듯이, 세포 배양 식품도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양육을 넘어 다른 동물성 소재로도 연구를 확장하고 있나요?

저희가 현재 두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배양 가축입니다. 소의 표피세포를 이용해 콜라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가축 소재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회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관련 기업 및 가축 관련 연구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축은 식품과는 또 다른 시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자동차 내장재와 같은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큼니다. 배양육이 식품 분야의 세포 농업이라면, 배양 가축은 동물성 소재 산업에서 세포 농업이 확장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돼지 배양육과 소 배양육은 배양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돼지와 소는 세포가 원하는 배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배양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태아혈청 하나로 모든 세포를 키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산업화를 생각하면 축종별로 훨씬 세밀한 조건 설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돼지 세포와 소 세포에 맞는 무혈청 배지 레시피를 각각 다르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축종 안에서도 근육세포와 지방세포가 원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근육과 지방도 별도로 배양 조건을 잡아야 합니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배양육은 단순히 세포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축종과 세포 종류에 맞게 배양 환경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 농업 기술 분야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대량 배양 기술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험실 규모에서 세포를 키우는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지만, 그것을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안정적이고 반복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랩 스케일에서 가능한 기술을 공장 규모로 옮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야로 보면 아직은 배양육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양 가죽이나 배양 모피처럼 동물성 소재를 만드는 연구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포 농업은 정밀 발효와 결합해 특정 성분을 강화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나 고기능성 식품 원료를 만드는 방향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엑소좀,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바이오 분야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큼니다.

배양육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먹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배양육을 실제로 먹어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식물성 대체육은 이미 먹어 본 사람이 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양육도 식물성 대체육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2021년부터 시식회를 진행해 왔으며, 정확한 횟수를 모두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약 70회 정도 250명가량에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맛과 냄새 등을 종합했을 때 5점 만점에 평균 4.7점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블렌디드 형태, 100% 배양육 형태, 식물성 대체 단백질과 섞은 하이브리드 형태 등 여러 방식으로 제공했는데, 전반적으로 맛에 대한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특히 식물성 대체육과 섞은 하이브리드 방식에서는 배양육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갔을 때 식물성 대체육 특유의 아쉬운 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비자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낯선 기술을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음식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새롭게 공부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금융공학을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유학을 처음 준비하던 시기에도 금융공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이 알려진 분야가 아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융공학은 단순히 돈을 다루는 학문이라기보다, 국가 정책 자금이나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당시에는 그 분야가 굉장히 새롭고 도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그쪽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세포를 배양한다면 지구에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완전히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포는 결국 3차원적으로 배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배양액을 가득 채운 공간 안에 세포를 띄워 둔다고 해서 조직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세포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조직이 자라는 방향성이 지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중력보다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줄 수 있는 중력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g까지는 아니더라도 0.3g 정도의 편향된 방향성이 있어야 세포가 조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직 가정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돼지, 소, 닭 외에도 다양한 축종으로 연구를 확장할 계획이 있나요?

최근에는 악어와 관련된 요청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배양 가족을 연구한다고 하니 악어가족을 배양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악어가족은 일반 소가족과 비교해 가격이 훨씬 높고, 희소성도 큰 소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배양 가족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면 시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축종을 넓히는 것은 단순히 세포만 가져온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각 동물의 세포 특성, 배양 조건, 조직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조건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세포 농업기술이 식용 고기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성 소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포 농업 기술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연구대로 깊이 해야 합니다. 전공 지식과 실험 능력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AI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포 배양 식품 연구에서도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습니다. 배양액 조건을 설정하는 일은 in silico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앞으로 피지컬 AI가 더 발전하면 실험실에서 테크니션이 하던 반복적인 업무도 상당 부분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세포를 키우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사람의 삶보다 세포의 상태가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세포가 새벽 3시에 배지가 필요하면 나와서 배지를 갈아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자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AI나 자동화 시스템이 내놓는 결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험을 잘하는 능력과 함께, 시스템을 이해하고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법입니다. 창업자가 변호사처럼 모든 법률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세무에 해당하는지, 상법에 해당하는지, 노동법에 해당하는지, 식품 규제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가를 만났을 때도 제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면 원하는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AI를 활용해 먼저 기본적인 방향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AI의 답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을 찾아봐야 하는지,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감을 잡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과정에서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진 경험이 있나요?

연구라고 하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학부 시절 물리화학 실험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교수님께 발표할 내용을 준비해야 했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담배 연기에 빛이 비치면서 스펙트럼처럼 보이는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리즘을 가져와 담배 연기에 빛을 통과시켜 보았고,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 영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실험에서 나온 결과는 아니었지만, 우연히 본 현상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진 경험이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그냥 넘기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생들이 대학생 때 꼭 경험해 보았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가치에 돈을 지불하는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장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한 번은 에너지를 끝까지 써 보는 경험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공부든 연구든, 동아리든, 창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몰입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스스로를 설명할 때도 다릅니다. 면접에서도, 실제 일을 할 때도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훨씬 단단합니다.

동행 모교 방문

여의도고등학교 모교 방문



2026.05.15. 여의도고등학교. (왼쪽부터) 정은우, 고솔비, 명아영, 김성민, 하채호

동행 모교 방문 활동은 부원들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동행과 동물생명공학전공, 그리고 대학 생활을 소개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모교 방문팀은 국장단과 함께 25학번 하채호 학생과 26학번 김성민, 명아영, 정은우, 최정빈 학생이 여의도고등학교와 경희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소개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모교 방문팀 부원들은 서로 다른 입시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교 후배들에게 입시와 진로에 대해 조언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교 방문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동물생명공학전공의 연구 분야, 동행을 비롯한 동자과의 동아리와 과행사, 학교 생활, 그리고 Q&A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첫 모교 방문 활동을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최정빈 부원의 모교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모교 방문팀의 하채호, 김성민, 명아영, 정은우, 최정빈 학생과 동행 국장 고솔비 학생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의도고등학교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여의도 한강공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중점고등학교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의도고등학교 학생들은 소개가 진행되는 동안 뜨거운 학구열과 호기심을 아낌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모교 방문은 동물생명공학전공이 속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반적인 편제와 학부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동물생명공학전공을 이끌어가는 열 분의 교수님이 각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분야와 학문적 방향성을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였으며, 학과 교과과정은 물론 졸업 후 연구소, 기업, 정부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의 생생한 진로 현황까지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후배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은 입시 정보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치열하게 입시를 치렀던 팀원들은 자신만의 교과 관리 방법, 면접 준비 방법, 수능 전략 등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실전 경험담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선배들의 진심 어린 조언은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후배들에게 실질적이고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교 방문은 고등학생들이 가장 기대할 만한 캠퍼스 라이프 소개로 이어졌습니다. 매년 새내기들이 추억을 쌓는 '과잠 입고 다 함께 롯데월드 가기'를 시작으로 푸르른 관악산 등반, 활기찬 야구 경기 단체 직관, 낭만 가득한 작년 동행 여름 여행 등 대학 생활에서의 다채로운 추억들을 사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에 더해 학과의 대표 행사인 '국담'과 '축산의 날', 그리고 동행을 비롯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동자과의 동아리들을 활동 모습과 함께 생동감 있게 소개해 후배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누리게 될 대학 생활을 미리 상상해 볼 수 있는 설렘을 선사했습니다.

전공 소개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팀원들이 답변하며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들께서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학술적인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전공에 진입한 2학년 학생들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또한 학생 대부분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였기에 졸업 이후 진로, 고등학교 시절 식품동물생명공학부로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 등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내신 공부 방법과 수능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일 학습 시간, 내신 시험이나 수능

을 대비해 공부했던 과정 등 각자의 학습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각자 알맞은 공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느꼈던 감정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전공생들이 각자의 입시 경험을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었고,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은 교내 행사와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나뉘었습니다. 새내기새로배움터, 축산의 날, MT, 교내 축제 등 교내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각 행사에 참여한 전공생들이 답변하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고, 수업, 중간고사 공부, 학식 등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들에는 새내기들이 교내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과 이를 해결했던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정들었던 모교를 오랜만에 방문하여 후배들 앞에서 전공을 소개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저희가 전한 이야기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후배들에게 작게나마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희고등학교 모교 방문



2026.05.29. 경희고등학교. (왼쪽부터) 정은우, 김성민, 명아영, 최정빈, 고솔비, 이영표, 하채호

5월 29일, 동행은 두 번째로 하채호 학생의 모교인 경희고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모교 방문에는 동행 21호 모교 방문팀의 하채호, 김성민, 명아영, 정은우, 최정빈 학생과 동행의 국장 고솔비, 부국장 이영표 학생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교 방문은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경희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여의도고등학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궁금해할 부분을 보강하여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학과 소개가 모두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동물생명공학전공에 큰 관심이 있던 1학년 학생이 앞서 발표에서 언급된 '반추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표 학생이 소와 같은 동물들이 여러 개의 위를 가진 이유를 학생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은 동행 부원들의 고등학교 시절 전교 등수를 물어보며 공부에 대한 열정과 목표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모교 방문에서는 담당 선생님의 관심이 매우 뜨거우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기를 바라며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고등학생 때의 공부량에 대해 부원들은 자신의 고등학생 시절 공부량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1, 2학년 때부터 하루에 최소 4시간씩 공부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를 했다고 하자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또한 입시 당시 목표로 했던 학과나 학교와, 고민 끝에 현재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동행의 각 부원들은 진솔하게 자신의 입시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에게 현재 전공을 알게 된 계기와 선택한 이유를 전달하였습니다.

모교 방문 활동을 통해 동물생명공학전공을 알리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고등학교 후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한 경희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번 경험을 통해 좋은 자극을 얻을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동행 이야기

한강 피크닉



2026.03.27. 여의도한강공원, (왼쪽부터) 최우인, 김은서, 고명학, 권재윤, 양준현, 고솔비, 이하진, 명아영, 안지우, 남나을

한강 피크닉 1팀

지난 3월 27일, 땀을 스치는 바람에 실린 봄 향기가 제법 짙어지던 날 저희 동행 부원들은 따스한 봄별을 찾아 여의도한강공원으로 첫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여유로운 금요일 한낮의 정취를 머금은 한강공원엔 이미 수많은 시민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역시 그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선명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피크닉의 시작은 기대감 섞인 조심스러운 인사와 약간의 어색함이 감도는 미소였습니다. 돛자리 위에 둥글게 모여 앉아 선후배 간의 서투른 자기소개가 이어졌고, 서로를 향한 격려의 박수가 오갔습니다. 이내 음식이 도착했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분위기는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바쁜 전공 수업 이야기부터 각자의 소소한 취향, 지난 방학 동안 겪었던 엉뚱하고 유쾌한 에피소드까지 대화의 주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작은 이야기 하나를 꺼내면 모두가 맞장구를 치고, 시원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잠시 대화가 잦아든 사이 눈에 들어온 옆자리 풍경은 또 다른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체로 현장 체험 학습을 온 듯한 학생들이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넓은 잔디밭을 자유롭게 뛰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부원들은 각자의 학창 시절 추억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시험과 과제에 쫓기며 잠시 잊고 지냈던 학창 시절의 추억, 등굣길의 사소한 장난이나 급식 메뉴 하나에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했던 그 시절의 순수함을 공유하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봄별 아래를 달리는 아이들의 뒷모습에서 치열한 대학 생활을 이어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피크닉은 부원 모두가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봄별 아래 나란히 앉아 마음을 나누는 사이 부원들 사이의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소소하고 따뜻한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동행'이라는 이름이 지닌 의미처럼 서로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오래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03.28. 여의도한강공원, (왼쪽부터) 김동윤, 최서윤, 김서연, 봉민서, 채하진, 김한민, 김아민, 강민서, 변지민, 최수민, 민채울, 박희원

한강 피크닉 2팀

피크닉 2팀 부원들은 바쁜 학기 중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한껏 따뜻해진 날씨에 설레며 점심 무렵 여의나루역에서 모였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아 만발한 꽃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여러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고, 과방에서 소중히 챙겨 온 돛자리를 넓게 펼쳤습니다. 돛자리를 펴는 손길마다 새로운 추억을 쌓겠다는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니, 학교 건물 형광등 아래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생기 넘치는 표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모이던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푸른 잔디 위에 돛자리를 깔고 앉으니, 평범한 주말도 특별한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치킨과 떡볶이를 주문하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역할을 나누어 음료수, 일회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사 오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윽고 음식이 도착하자,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젓가락을 들며 기분 좋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대학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도 나누며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졌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부원들 사이에는 가족 같은 끈끈한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던 중 오리배를 타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한껏 들뜬 마음으로 식사 후 오리배 선착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해 세 명씩 팀을 나누어 네 대의 오리배에 올라탔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배에 오르자 팀원들 사이에서 유쾌한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옆 팀 오리배가 가까워질 때마다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장난도 치고,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배가 빨리 나아가는지 연구해 보기도 하며 한강 한복판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한강 피크닉은 캠퍼스를 벗어나 야외에서도 함께 어울려 놀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나누었던 따뜻한 교감은 앞으로 이어질 동아리 활동에도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물 위의 윤슬처럼 반짝이던 이날의 기억이 학기 중 지치는 순간마다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에너지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2026.04.04. 여의도한강공원, (왼쪽부터) 이사야, 강동윤, 송희진, 송준혁, 김성민, 김시온, 손현우, 이서연

한강 피크닉 3팀

4월 4일, 여의도로 한강 피크닉을 다녀왔습니다. 전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걱정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날이 맑고 화창해서 좋았습니다. 아침 날씨도 좋고 벚꽃철이라 그런지 거리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2시에 모여서 단체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기로 하였고 돛자리를 챙겨 도착했습니다. 메뉴는 마라 로제 떡볶이였고 조금 맵게 느껴졌지기도 했지만 다 함께 웃으며 먹다 보니 그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후, 다 함께 주변을 산책하면서 벚꽃 구경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한강도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한강은 무척 시원해 보여 입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강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배의 제안으로 다 같이 재미있는 포즈를 취해 보다가, 쑥스러워 카메라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 모습에 또 한바탕 웃기도 하였습니다.



해가 쨍쨍해 조금 덥기도 했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시원했습니다. 곳곳에서 보이는 버스킹 공연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다리 위로 올라가 예쁜 벚꽃나무 아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운 추억을 하나만들 수 있었던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친절한 선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피크닉을 통해 동자과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맛집 탐방



2026.04.07. 구통이 서울대점, (왼쪽부터) 예준희, 이건호, 김현준, 조선우, 신재성, 이기현

맛집 탐방 소팅

구통이 서울대점은 샤로수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성대와 가까워 학교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고기와 조화를 이루는 파채, 배추김치, 파김치, 콩나물 등의 반찬과 후추, 소금, 와사비, 쌈장 등의 조미료가 제공되었습니다. 밑반찬 중 기억에 남는 것을 꼽자면 첫 번째는 미나리 양파절임이었습니다. 다른 식당의 일반적인 양파절임과는 달리 미나리를 넣어 생미나리의 향긋함이 입맛을 돋워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소고기뭇국은 기본으로 나오는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많이 들어 있고 국물 맛이 깊어 다른 식당과 차별화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구통이는 300시간 이상 고기를 저온 숙성한다는 특징이 있어 따로 양념이 되어 있지 않은 생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고기 자체의 풍미가 워낙 훌륭해서 마치 양념이 되어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소 꽃갈빗살 두 판을 먹어 보았습니다. 숯을 사용한 불판에 고기를 구워 고기 겉면의 불향이 훌륭했고, 속에는 육즙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고기 자체의 퀄리티

가 워낙 좋아서 소량의 소금만 찍어 먹으며 꽃갈비의 순수한 풍미를 최대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다 먹은 후, 저희는 사이드 메뉴로 잔치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사전에 네이버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서비스로 받은 된장 술밥도 함께 먹어 보았습니다. 잔치국수는 기본에 충실한 맛이었고 된장 술밥은 조미료 간이 적절하게 되어 있고 된장의 맛이 깊어 인상 깊었습니다.

맛집 탐방 활동을 통해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고급스러운 소고기를 먹으며 부원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04.25. 평안도족발집, (왼쪽부터) 최정빈, 정은우, 김다민, 윤주현, 하채호, 이종윤

맛집 탐방 돼지팀

2026년 4월 25일, 저희는 낮 12시 동대입구역에서 모였습니다. 돼지 맛집 탐방이라는 주제에 맞게 향한 곳은 장충동 족발 골목이었습니다. 장충동은 오래전부터 족발로 이름난 동네인 만큼, 토요일 낮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평안도 족발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족발과 막걸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족발로 유명한 동네인 만큼 평소에 먹던 족발보다도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다들 감탄하며 식사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인

막걸리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시원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수다를 떨며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 접시는 금세 비었고, 부원들 간의 사이는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족발로 배를 든든히 채운 후, 저희 팀원들은 근처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 방문했습니다. DDP 내에서는 플리마켓과 시음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팀원들은 DDP 내를 걸어 다니며 플리마켓 부스를 구경하고 시음 행사에도 참여하며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며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산책을 즐겼습니다.



2026.04.25. 피쉬앤그릴 & 치르치르 낙성대점, (왼쪽부터) 김다윤, 문예은, 마예은, 허윤하, 김은민

맛집 탐방 닭팀

저희는 낙성대 입구에 있는 '피쉬앤그릴 & 치르치르 낙성대점'에 다녀왔습니다. 피쉬앤그릴 & 치르치르 낙성대점은 낙성대역 근방에 있어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가게는 은은한 조명과 분리된 좌석 덕에 술을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하기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6시쯤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7시 이후부터 술을 마시는 손님이 많아져 자리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메뉴의 카테고리는 후라이드, 스페셜 및 세트, 동지 치킨, 그리고 그 외에 사이드와 주류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저희 팀은 메뉴 종류가 많아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대표 메뉴 중심으로 다양하게 맛보고자 치르치르 미치르, 간풍 치킨, 로제 치즈 치킨,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치킨은 두꺼운 감자튀김과 함께 나왔고, 순살 닭가슴살로 제공되었습니다. 치르치르 미치르는 파스타가 치킨 위에 얹어져 있는 메뉴로, 가장 눈길을 끄는 비주얼이었습니다. 고소한 크림파스타 소스와 치킨의 조화가 인상적이었고, 색다른 느낌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크림소스가 들어갔지만 지나치게 느끼하지 않았고, 맥주와 잘 어울리는 메뉴였습니다.

로제 치즈 치킨은 후라이드 치킨 위에 로제 소스와 치즈가 얹어진 치킨으로, 치르치르 미치르와 비슷하게 부드럽고 진한 풍미가 특징이었습니다. 간풍 치킨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잘 어우러졌고, 후라이드 치킨은 기본에 충실하여 담백하고 바삭한 느낌이었습니다.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과 생활과 시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분위기가 풀어졌고, 평소 이야기할 기회가 많지 않던 팀원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쿠아리움



2026.05.08.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왼쪽부터) 김민제, 최우인, 강동윤, 강민서, 허윤하, 손현우, 김은민, 봉민서, 김시은, 송희진, 마예은, 변지민, 최수민, 고솔비, 고명학, 이영표, 김다윤

2026년 5월 8일, 동행은 아쿠아리움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부원들이 함께 걸으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작은 힐링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탐방을 기획하였습니다.

입구에 모여 티켓을 발권한 뒤 본격적으로 아쿠아리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를 맞이한 것은 수조 속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웅장한 대형 수조 안에서 상어, 가오리, 작은 물고기들까지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에 부원들 모두가 감탄했고, 수조 앞에서 단체 사진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마주친 흰동가리 수조는 하트 모양의 꽃장식이 어우러져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흔히 '니모'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수백 마리의 흰동가리가 선명한 주홍빛을 띠며 수조 안을 가득 채운 모습만으로도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후엔 바위 위에 웅기증기 모여 있는 펭귄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거나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펭귄들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부원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펭귄의 귀여움에 매료된 부

원들은 다 함께 펭귄들을 구경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물고기들이 무리 지어 헤엄치는 수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조의 파란 물빛 속에서 유영하는 물고기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부원들은 수조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람을 마친 뒤에는 기념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아기 물범 모양의 귀여운 인형들, 북극곰 모형이 들어 있는 모래시계, 최근 유행하는 키캡 키링 등 다양한 기념품이 가득 진열되어 있어 부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의 아쿠아리움 탐방은 오랜만에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눈 시간이었으며, 무엇보다 동행 부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동행



동행 여름 MT



2026.06.26.-27. 을왕리 어울림펜션

동행 21호 부원들은 여름을 맞아 을왕리로 떠났습니다. 선발대로 도착한 부원들은 숙소에 짐을 두고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향하며 본격적인 MT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은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어 땀이 날 정도로 더웠지만 해수욕장에 가까워질수록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설렘은 점점 커졌습니다. 모래사장에 발을 내딛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더위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부원들은 자연스럽게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해수욕장에 도착한 부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바다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부원들은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장난을 쳤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물놀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만 담그겠다던 부원들도 곧 옷이 젖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신나게 놀았습니다. 서로를 들어 올려 바다에 빠뜨리기도 하고, 빠지지 않으려고 도망치기도 하며 해수욕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해 뛰는 모습과 결국 잡혀 바다에 빠지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은 해수욕장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도 특별한 추억이 만들어졌습니다. 몇몇 부원들은 바다에 들어가는 대신 노래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어 파도 소리와 여유를 즐겼습니다. 해변에는 다양한 글씨가 적혀 있었고, 저희 역시 모래 위에 '동행'이라는 글씨를

정성스럽게 새겨 사진을 남겼습니다. 바닷바람과 파도,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웃음이 어우러진 그 순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장면이었습니다.

해수욕을 마친 뒤에는 이기헌 부원을 모래사장에 묻는 장난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어느새 모래사장을 파고 모래를 높이 쌓으며 모양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웃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기헌 부원도 즐겁게 웃으며 상황을 받아들였고 주변 부원들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추억을 기록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물놀이가, 모래사장에서는 장난과 웃음이 이어지며 을왕리 해수욕장은 동행 21호 부원들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선발대로 출발했던 장보기팀은 숙소에 가기 전, 마트에서 저녁 식사 재료와 과자, 음료, 일회용품 등을 사러 갔습니다. 사야 할 물품이 많아 장보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까 걱정이었지만 물품 리스트를 꼼꼼히 준비해 준 국장님과 손발을 맞춰 척척 움직여 준 팀원들 덕분에 빠르게 필요한 것들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장 본 물품들은 카트 네 대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았지만 먼저 숙소에 도착한 부원들이 도와주어 수월하게 옮기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놀다 보니 금세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되어 모두와 함께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으로는 돼지고

기와 소시지를 구워 쌈채소와 함께 먹었고, 비빔면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먼저 식사를 마친 부원들이 집계를 이어받아 다른 부원들을 위해 고기를 구웠는데, 웃음 속에서 서로 쌈을 싸주며 챙기는 모습에서 부원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을 무렵, MT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게임에 앞서 사전에 정해진 조별로 구호를 정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 MT에서는 모든 조가 약속이라도 한 듯 특정 조원 이름을 그대로 구호로 썼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레크리에이션은 MT 준비 위원회 부원 네 명이 각각 하나씩의 활동을 준비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김은서 부원이 준비한 '몸으로 말해요' 게임으로 레크리에이션의 문을 열었습니다. 각 팀은 가위바위보 순서에 따라 직업, 동물, 음식 등 카테고리를 선택했고, 제시된 단어를 본 한 명의 조원이 몸짓만으로 표현하면 나머지 조원들이 단어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금씩 쑥스러워하는 모습도 있었고,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에 애를 먹은 경우도 있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몸짓과 반응들이 이어지며 현장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팀원들 간의 어색함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 강민서 부원이 준비한 '어린 시절 사진 맞추기'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에 받은 동물생명공학전공 재학생 15명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고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맞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멘토멘티 활동, 밥약 등으로 친해졌던 학생들과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 더욱 흥미를 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은민 부원이 준비한 '이모티콘 퀴즈' 게임은 영화 제목, 음악 제목 및 가수 등 여러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제시된 이모티콘 조합을 보고 정답을 맞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게임이었지만, 막상 문제를 마주하자 팀원들끼리 다양한 추측을 주고받으며 협동심을 발휘해 정답을 찾아나갔습니다. 정답을 맞추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팀원들 간의 호흡도 한층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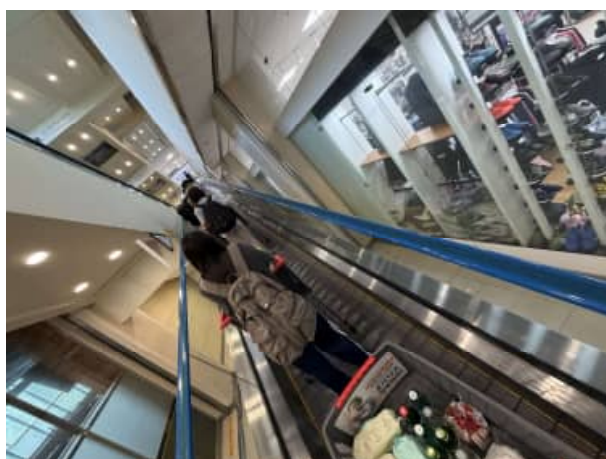
마지막은 권재윤 부원이 준비한 '소믈리에' 게임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브랜드의 소주를 조별 컵에 소분해 제공한 뒤, 맛을 보고 어떤 브랜드인지 맞히는 방식이었습니다. 팀별로 맛과 향을 비교하며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지만, 마지막까지 확신했던 답이 틀리기도 하며 큰 웃음을 안겼

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동행 부원들은 더위도 잊을 만큼 마음껏 웃고,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색했던 사이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팀원들과의 단합도 더욱 깊어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 끝난 후, 부원들은 시원한 밤바다에서 MT 준비 위원회에서 준비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부원들은 폭죽을 감상하고 직접 터뜨려 보기도 하며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끝없이 이어지는 웃음소리 속에서 동행 21호 부원들은 을왕리에서 잊지 못할 여름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파도에 쓴 글씨는 지워졌을지 몰라도, 함께했기에 더욱 즐거웠던 그날의 추억은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동행





동행 속 한 조각 - 대신 전해드립니다

To. 고슬비

슬비 언니! 든든한 국장으로서 동행을 이끌어줘서 고마워 ㅎㅎ
항상 중심을 잡아줘서 언니 덕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 22호 동행도 잘 부탁해!

To. 양준현

배울 점도 많고 멋진 동기!!
덕분에 즐거운 과 생활할 수 있었어 고마워 ㅎㅎ

To. 국장단

한 학기 동안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고 애써주신 국장단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행사와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해 주시느라 쉽지 않은 순간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 학기 동안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To. 김시온

나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데, 고마운 거 많았구 언니가 조언해 준 거랑 챙겨준 거 덕분에 학교 생활 적응 도움 많이 됨!! ㅎㅎ
2학기 때도 보면 좋겠다

To. 이영표

영표형 이번 학기 동안 많은 일 맡느라 고생 많았고 나 많이 도와주고 챙겨줘서 고마워

To. 신재성

다사다난했던 1학년 1학기를 네가 있어서 잘 보낼 수 있었어.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너처럼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같이 맨맨 활동을 하고, 금요일 아침에는 축구를 하고, 밤을 지새우며 축구 경기를 봤던 일들이 무료했던 대학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어. 또 시험 기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너를 보면서 자극도 많이 받았고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어. 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좋은 추억 쌓아가보자!

To. 강민서

이번 학기 동안 계속 챙겨주고 좋아해 줘서 고맙고 요즘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자주 놀러다니자 ㅎㅎ
(나 누군지 알겠지??)

To. 고슬비

MT때도 함께 준비하면서 철저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동행을 멋지게 이끌어나가기를 응원합니다!

To. 하채호

초반에 대학교도 멀리 다니게 되고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하채호 선배님이 친근하게 해주셔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멋선 채호 선배님!

To. 이영표

처음에 형 이름을 보고 익숙한 이름이어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어느샌가 보니 친해져 있네 ㅎㅎ 형한테는 학업 관련해서 많이 도움 받았어. 화학 퀴즈 족보도 그렇고 수학 관련 조언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 또 형 덕분에 선후배가 허물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 학기 초에 후배로서 선배에게 선뜻 말을 걸기 어려웠는데 형이 그 가고 역할을 해줘서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 또 형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어줘서 더 기억에 남는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 한 학기 고생 많았고 다음 학기도 잘 부탁해!

To. 김동윤

형을 정시 OT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 형인 줄 모르고 반말을 한 게 생각이 나. 처음에는 친해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과에서 가장 편한 사람 중 한 명이 됐어. 형이랑 처음으로 수업을 빠지고 축제를 가기도 하고, 밤을 새며 축구를 보기도 하면서 정말 즐거운 1학기 보낼 수 있었어. 과에서 어린 애들이랑 놀아주느라 고생이 많을 텐데 앞으로도 잘 부탁해 ㅎㅎ 과에서 의지할 수 있는 형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 다음 학기에는 더 알차게 보내보자!

To. 황은규

형을 새터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선배랑은 꼭 친해지고 싶다 생각했어. 물론 술게임 하는 모습은 조금 무서웠지만 형이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학기 초에 과방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형 덕분에 들어갈 용기가 났어. 그렇게 과방에서 알게 된 선배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학교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었어. 뿐만 아니라 학업과 더불어 밴드 활동, 동아리 활동, 선거 관리 활동 등 바쁘게 살아가는 형의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 느꼈어. 이런 형을 보면서 나중에 후배한테 꼭 형같은 선배가 되고 싶다 생각했어. 형 덕분에 1학기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군대 무사히 다녀와!

To. 윤주현
언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나... 너의 절친이 되고싶다♡

To. 이견호
한 학기 동안 멘토로서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마워. 동자 MT 때 사회 좋았어
다음에도 부탁해^^

To. 정은우
FC 동자를 처음 갔을 때 주위에
선배밖에 없어서 부담스러웠는데 네가
있어서 잘 스며들 수 있었어. 사실 처음
왔을 때는 너도 선배인 줄 알았는데
동기라고 하니깐 안심되더라. 학기 초에
너랑 친해져서 다른 과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MT 가서
너랑 진대하면서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어. 또 시험기간에는 같이 밤을 새며
공부하거나 새벽에 축구 경기를 같이
보는 등 한 학기 동안 너무나도 즐거운
추억 만들 수 있었어. 키도 크고 잘생긴
은우야, 1학년 1학기 너무 수고했고
앞으로도 같이 즐거운 학교생활 하자!

To. 고솔비
원래도 그랬지만, 동행을 하면서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선배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나는 1년 뒤에
저런 모습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ㅎㅎ 동행 부원으로 행복한 한
학기 보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국장님!!

To. 김아민
처음 인스타에 겹지인이 있는걸 보고
되게 궁금했는데 너랑 친해지길 잘 한
것 같아. 새터에서 너랑 못 친해져서
아쉬웠는데 다행히 나중에 친해질
기회가 많아서 좋았어. 네 덕분에 인생
처음 릴스도 찍어보고 참 재밌었어.
릴스를 찍으면서 느낀 게 나는 참 춤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ㅋㅋ 헤르츠
공연을 보는데 나와는 달리 춤을 되게
잘 추는 너가 정말 멋있더라. 집도
가까운데 더 자주 만나서 같이 놀자. 한
학기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To. 최서윤
누나를 정시 OT에서 처음 봤는데
탈색 머리에 계속 눈이 가더라. 내가
탈색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누나
머리를 보고 나도 하고 싶어서였어.
누나랑 본격적으로 친해진 게 야구
관람을 간 이후였는데 거기서 릴스도
같이 찍고 야구에 대해서도 알려줘서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어. 또
새벽에 축구를 보며 밤을 새기도 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으면서 과 생활이
더 즐거웠던 것 같아. 평소에 애들
케어해 주는 모습 보며 의지할 수
있는 누나라 느꼈고 특히 MT를 통해
더 그랬던 것 같아. 1학년 1학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To. 하채호
첫인상과는 다르게(엄격 근엄
진지 회장단 이미지...) 정말
다정하고 살갑고 후배들 생각도
많이 해주시는 선배님ㅎㅎ 선배의
그런 면이 너무 좋고 항상
고마워요 진심으로!!

To. 이견호, 이영표, 김다운
이백호, 이한표, 김나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To. 강동운
주변인들을 기분 좋게 하는
특유의 다정함과 차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은
못했지만 늘 좋은 영향 받고
있어 고마워~

To. 하채호
부회장하랴 윗동 주장하랴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 더 화이팅 하시고
2학기도 잘부탁드려요~
클라이밍 응원합니다!!

To. 조선우
대학교에 처음 와서 같은
기숙사에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
과 행사가 있을 때 거의
항상 같이 가고, 기숙사에서
같이 축구를 보는 등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정이 든 것
같다. 방학 동안 베트남 잘
다녀오고, 다음 학기에도 잘
지내보자. 다음에 베트남
한번 놀러갈게!

To. 이영표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허준이 교수님께서 모든
사람, 특히 자신에게 친절하라고
말씀하셨다. 당시에는 뭣도 몰랐기에
필즈상씩이나 받은 수확자가 왜 저런
상투적인 말을 뱉나 싶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와 사람들은 규격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에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대가 없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점점 적어졌다.
'일체유심조'라고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 역시
남에게, 그리고 나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서서히 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가끔 통념을 깨는 인물들이 삶에
나타날 때가 있다. 타인의 추함보다는
아름다움을, 과실보다는 공적을,
잘못보다는 변화 가능성을 봐주는 그런
유형의 사람. 영표 선배가 그런 사람이다.
이번 학기는 여러모로 불안하게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의 중심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난다.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늘 괜찮다고 말해주는 선배의 지지
덕분이었던 것 같다. 잘한 것보다는
실수를 크게 의식하게 되는 새내기
생활의 절반을, 누구보다 친절을 베푸는
방법을 잘 아는 이영표 선배와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동행 21호를 만든 사람들



국장	고솔비
부국장	이영표
동자과 행사팀	김시온 김현준 남나을 안지우 예준희 이기현 최우인
교수님 인터뷰팀	민채울 마예은 봉민서 이서연 최서윤
졸업생 인터뷰팀	최수민 강동윤 김다민 김민제 송준혁 송희진 양준현 윤주현
학부생 인터뷰팀	변지민 김아민 손현우 이건호 이종윤 허윤하
동자과 동아리팀	김다운 고명학 김한민 문예은 박시현 이사야
토크콘서트팀	김동윤 박희원 조선우 채하진
모교방문팀	하채호 김성민 명아영 정은우 최정빈
동행MT팀	권재윤 강민서 김은민 김은서 이아인
디자인팀	이하진 김서연 신재성

에디터의 한마디

3월부터 8월까지, 16명의 동물생명공학전공 신입생과 35명의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신입생이 정성을 가득 담아 동행 21호를 만들었습니다. 동행 21호를 준비하는 한 학기 동안 인터뷰, 모교 방문, 토크콘서트뿐만 아니라 한강 피크닉, 맛집 탐방, 아쿠아리움 방문, 여름 MT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에디터의 한마디'는 이렇게 동행 21호와 함께한 51명의 부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고솔비

50명의 동행 부원들을 이끌어가며 완성한 21호라 더 특별했던 한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맡은 국장 자리이기에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묵묵히 믿고 지지해 준 부국장 영표와 따라와 준 동기, 후배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학생분들이 흔쾌히 건네준 도움과 이야기 덕분에 동행 21호가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신입생으로 동행에 참여하며 동자과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번 26학번 친구들도 동행을 통해 저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모두 2학기에 더 재밌는 동행 22호로 만나요 :)



이영표

동행 21호를 부국장으로 함께하며, 국장님이 모든 활동 일정을 하나하나 챙기고 쉴 틈 없이 다음 활동을 준비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다행이었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원들 모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기 몫을 성실히 해내는 모습에 큰 자극을 받았고, 저 역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히 사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카메라로 열심히 찍다 보니 다양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원들과도 한층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들어진 21호는 정말 값진 기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학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강동윤

동행 졸업생 인터뷰팀으로 참여하여 동자과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행 덕분에 선배님들, 동기들과 함께 한강 피크닉, 아쿠아리움, MT에서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강민서

저번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동행에서 많은 추억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전공을 선택해야 했고,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결국 동자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선택의 중심에는 동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는 목장 방문팀으로 시작하여 아쉽게도 목장은 가지 못했지만 엠티 준비 위원회로 참여하며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동기들과 친해질 기회도 더 많았던 것 같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동행 화이팅!!



고명학

동행 21호!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추억을 쌓고 다양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엔 동아리팀으로 참여했는데, 동자과의 다양한 동아리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로 대학에 들어온 26학번들과도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동행에서 주관한 피크닉과 엠티 등 다양한 활동 덕분에 힘들었던 학기 중에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동행을 잘 이끌어준 국장단과 부원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1학기 모두 수고했고 푹 쉬다가 2학기에 만납시다! 동행 화이팅~



권재윤

동행 21호! 너무 많은 추억을 남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웃으며 즐거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MT팀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행 활동을 통해 동기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후배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준비해 준 MT팀 팀원들, 든든하게 도와준 국장단, 그리고 동행 21호를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활동에서의 즐거운 기억들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2학기에도 동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만남을 만들어 주는 공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김다민

새내기로서 처음 동행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어색하고 서툰 점도 많았지만, 졸업생 인터뷰팀에서 선배님들과 함께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졸업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자과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더 기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잘 챙겨주신 선배님들과 함께해 준 동기들에게 감사하고, 다음 학기에도 즐겁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김다윤

작년 1학기부터 동행 활동을 이어오며 이번 동행 21호로 벌써 세 번째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매년 활동할 때마다 다른 추억과 배움을 얻을 수 있어 정말 뜻깊었습니다. 처음 동행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익숙해진 부분도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동아리팀으로서 동자와 동아리의 활동 모습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함께한 동아리팀 팀원들 덕분에 끝까지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한 동행 21호 모두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동행이 동자과의 여러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록해 나가길 바랍니다!



김동윤

동행 엠티 날짜를 처음 잡던 날이 생각납니다. '저 날이 오긴 할까, 내가 동아리 사람들과 저때까지 친해져 있을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만연했던 초봄을 지나, 장마가 한창인 여름방학이 왔습니다. 저는 제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생겼다, 그런 것을 떠나서 사진을 보면 쪽팔리고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생각나거든요. 동행과 동행에 들어갈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가 포함된 기록과 사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즐거운 추억들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치 동행이 제가 걸어온 발자국에 꽃을 피워 준 기분입니다. 다음에 동행을 하는 누군가도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제

한 학기 동안 동행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졸업생 인터뷰팀으로 활동하며 업계에 진출해 계신 졸업생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 평소에는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라 더욱 뜻깊었습니다. 회식이나 아쿠아리움, MT 같은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선배들, 동기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서연

대학에 입학한 이후 가장 소중한 기억을 꼽으라면, 제 선택은 '동행'입니다.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동행은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 가장 고마운 존재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디자인팀에서 동아리의 콘텐츠를 직접 기획해 본 경험은 정말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우리과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선배, 동기들과 머리를 맞대며 짠 아이디어가 완성될 때 엄청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선 새내기이지만, 좋은 사람들과 매 순간 웃으며 작업할 수 있어 행복함으로 가득 찬 첫 학기였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도 동행이 저처럼 소중한 추억을 선물 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민

대학에 와서 첫 학기를 동행과 함께하며 동기들과 뜻깊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모교 방문팀에서 여의도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를 방문하며 서울대 동물생명공학전공에 관심 있는, 후배가 될지도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서 기뻐요! 한 학기 동안 모교 방문팀, 다른 동행 부원분들, 그리고 국장 부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온

대학에 입학한 이후 가장 소중하고 부듯했던 기억들을 떠올려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세 학기 동안의 대학 생활이 동행 덕분에 더욱 알차고 특별하게 채워졌네요.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동기들과 후배들과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기에 동행은 저에게 참 고맙고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동자과 행사팀으로 활동하면서 학과의 다양한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점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속한 학과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었고, 제가 보고 느낀 동자과의 다양한 매력들도 동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 21호 파이팅!



김아민

'동행은 무조건 해야하는 동자과 대표 동아리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동자과의 여러 사람들과 행사들에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강 피크닉, 정기 회의, 엠티 등 새내기 생활에 좋은 기억을 심어준 모든 동행 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학부생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선배님과 저희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동행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의미 있게 전달하는 동아리로 남길 응원합니다!



김은민

처음 동행에 들어와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기들 그리고 선배들과도 많이 가까워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정기 회의와 회식을 통해 동자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어 좋았고 MT, 아쿠아리움, 한강공원 방문, 맛집 탐방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동기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 덕에 동자과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풀어주신 선배님들 덕에 좋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한 학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서

첫 번째 동행 활동을 하면서 동자과와 부원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동아리인 이유를 느낄 수 있었던,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동아리였습니다! 동행 활동을 하며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과 친해지고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동행 21호 화이팅~!!



김한민

첫 동행 활동을 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서툰 점이 정말 많았지만 팀 선배들께서 계속해서 도움 주셔서 무사히 활동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피크닉을 통해 선배, 동기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준

과 사람들과 친해지고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동행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들을 선물한 동아리입니다. 선배분들과 함께했던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후배분들과 함께하며 색다른 동행 활동을 경험한 것 같고 아직 선배로서 어색함도 많이 느끼지만 좋은 과 사람들과 함께해 즐거움만 가득한 2학년 첫 학기를 보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동자과 행사팀을 진행하며 우리 과 행사들에 깊게 참여할 수 있었고 덕분에 이제 막 전공에 진입한 저에게 관련 지식도 얻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행이 신입생들, 앞으로 선배가 될 후배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많이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나을

동행이라는 이름과 같이 동자과와,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동자과 행사팀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행사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동자과의 매력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입학할 때는 생소했던 동물생명공학과에 대해 알게 되어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ㅎ 25&26학번의 수많은 노력이 모인 결과물이기엔 정말로 큰 기대가 됩니다! 또한, 거의 과 인원에 육박하는 인원을 통솔하고 관리하고 격려해 주셨던 고솔비 국장님과 이영표 부국장님께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음 학기에도 또 만나요!



마예은

이번 동행 21호 활동을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전공 수업을 듣지 않아 학과분들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동행 덕분에 다 같이 모여서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도 동행을 선택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해용.



명아영

처음에는 동행이 어떤 활동인지, 동자과가 무슨 과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동아리에 지원하였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과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선배 및 동기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교 방문 활동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의 입장으로 고등학교를 다시 방문하니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동행 21호 활동은 제 대학 생활 중 가장 큰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문예은

동행 21호에서 동아리팀으로 활동하며 동자과의 여러 동아리들에 대해 알게 되고, 소개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또 각 동아리가 어떤 목표와 특징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학과 내 다양한 활동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내용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를 찾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활동한 동행 21호 팀원들에게 고맙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민채울

여러 차례 동행에 참여했지만, 선배의 입장에서 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선후배 구분 없이 서로 편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행복했어요. ㅎㅎ 특히 교수님 인터뷰팀으로 활동하면서 교수님의 뜻깊은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봄날에 갔던 한강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ㅎㅎ 매번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동행이지만, 이번 동행은 특히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모두 정말 고마워요!!!



박시현

동행 활동에 참여하며 동자과의 진로와 동아리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저희가 쓴 기사가 동자과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일원으로서 여러 의미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한 학기를 더욱 다채롭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박희원

동행 활동을 하면서 동기들과 함께 준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후배들과도 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활동을 함께하다 보니 평소에는 잘 알지 못했던 모습도 알게 되었고, 덕분에 더 즐겁게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산업과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활동한 동행 21호 부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지민

벌써 세 번째 에디터의 한마디를 쓰고 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번 학기는 처음으로 선배의 입장에서 동행 활동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좋은 후배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당ㅎㅎ 동행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길 바라요! 앞으로도 동행이라는 이름처럼 서로에게 좋은 동행이 되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동행 21호 화이팅!!



봉민서

대학 생활의 첫 시작을 동행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쁜 한 학기였습니다! 동행 덕분에 동기, 선배들과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강 나들이부터 정기 회의, 엠티까지 어느 것 하나 즐겁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ㅎㅎ 2학기에도 동행 부원으로 활동하며 많이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우

처음에는 동행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었지만, 활동을 하면서 동자과에 대해 더 알아가고 선배님, 동기들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교환학생 인터뷰를 진행하며 미국 교환학생 준비 과정이나 학점 관리 방법 등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선배님들의 경험을 직접 들으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동행 활동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준혁

동행에서 졸업생 인터뷰팀으로 활동하면서 동자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지홀딩스로 가신 선배님들을 인터뷰하면서 제 진로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한 선배들과 동기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송희진

이번 동행 21호 활동을 하며 너무나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졸업생 인터뷰팀에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고, 동기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아쿠아리움 방문, 한강 피크닉 모두 기억에 오래 남는 유익하고 즐거운 활동들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재성

우선 처음으로 동행 활동을 하면서 동자과가 어떤 과인지에 대해 몸소 체험하며 더 깊이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동자과의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하며 과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과의 잊지 못할 추억들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동행 MT는 부원들과 함께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밤바다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모두 즐겁게 어울릴 수 있었던 특히 기억에 남는 MT였습니다. 이번 동행 21호 활동을 통해 부원들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공유할 수 있었고, 다음 학기에도 동행에 참여하여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이번 동행 21호를 위해 힘써주신 동행 국장단, 모든 부원들, 그리고 수많은 동자과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지우

선배님들이 다들 동행을 추천해 주셔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선배님들, 동기들과 더 친해지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팀으로 활동하면서 축날, 농체대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도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활동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준현

어느덧 2학년이 되어 서둘게나마 선배라는 자리를 배워가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흘러 동행 21호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시간은 매번 지나고 나서야 그 속도를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1호를 준비하며 평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동자과와 부원들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며 웃고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이 이번 학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동기, 후배분들과 보람찬 추억들 많이 쌓을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준희

동행 활동을 통해 선배, 동기들과 여러모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야구 관람, MT, 단체 회식 등 동행 부원들과 한 학기 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동행 덕분에 한 학기 생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윤주현

동자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추억을 쌓고 싶어서, 다들 할 생각이 있다길래. 학기 초, 그리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지원서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에 대한 기대는 물론 있었지만, 당시에는 한 학기 동안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동기들과는 더욱 끈끈해지고, 선배님들께겐 조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졸업생 인터뷰 활동을 통해, 사회에 나가계신 선배님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 학과의 진로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를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준 동행에게, 그 시간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21호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에디터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건호

벌써 3번째 동행 활동이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꼭 찬 기억과 경험을 남긴 것 같습니다. 함께 인터뷰를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원들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엠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도 대학 생활에서 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동기, 후배들과 더욱더 친해지고 돈독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쓰다보니까 또다시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모두 저처럼 동행에서 좋은 기억들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모두 화이팅~



이기현

동행에 처음 지원할 때만 해도 이만큼 즐거운 동아리 활동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동자와 행사팀에서 활동하며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기사도 써보고, 그 외에도 맛집 탐방과 동행 MT까지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동기들과 가까워진 건 물론, 동자과에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즐거웠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야

동행 21호의 에디터로 활동하며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획하고, 취재하고, 웃으며 글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좋은 선배, 동기들과도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두가 함께 만들어준 덕분에 이번 호도 무사히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행에서 보낸 이번 학기가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동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행 21호 화이팅!



이서연

3학기 동안 동행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평소에는 우리 학과의 다양한 진로와 가능성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경험해 볼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인터뷰를 준비하고,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 역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자연스럽게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한재용 교수님 인터뷰에서 연구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동행은 단순히 소식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름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동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호를 위해 함께 고생한 모든 에디터분들,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아인

동행에 들어와 첫 활동을 시작한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초고를 끝내고 소감을 적으니 학기 마무리가 실감 나네요! 묵묵히 중심을 잡아주신 국장님과 부국장님, 그리고 고생한 부원분들 모두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많이 참가를 하지 못했지만, 가장 뜻깊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2학기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뵈요! 감사합니다!



이종윤

한 학기 동안 동행 부원으로 활동하며 동기들, 선배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동행 21호에서 학부생 인터뷰팀에서 활동하며 대학 생활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의 추천으로 지원한 동아리였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하진

첫 동행! 왜 다들 그렇게 동행을 추천했는지 저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배, 동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했고, 동행에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21호 디자인에 아쉬운 점보단 부듯한 점이 더 많으니 다들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활동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우

한 학기 동안 동행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기들, 그리고 동자와 선배들과 더욱 빠르게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동행에서 모교 방문을 하며 우리 과를 소개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동행 덕분에 즐겁고 알찬 첫 학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선우

대다수의 동기들이 동행에 지원하여 따라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 학기 동안 활동하면서 그 인기의 이유를 실감하였습니다. 동행 토크콘서트팀으로 활동하면서 동자과에 관련한 산업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같은 팀 선배와 동기들과도 더욱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피크닉과 동행 MT와 같이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도 많아 정말 뜻깊은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하진

처음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동기들을 따라 지원하게 된 동행이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과 동기들 다 같이 활동을 한다는 점이 친목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한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최서윤

처음에는 동행에 들어오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기진 않을까, 귀찮은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행 활동을 시작한 뒤로는 제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정말 행복했고, 무엇보다 오래오래 이어가고 싶은 소중한 인연이라는 큰 선물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최수민

이번 학기 동행 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고 마무리도 하고 에디터의 한마디를 적고 있더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고생해 준 국장님과 부국장님, 그리고 모든 부원들 수고했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1학년 때에도 저에게 동행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준 동아리였듯이, 이번 21호도 뜻깊었어요ㅎㅎ 졸업생 인터뷰팀에서 진행한 이지바이오 선배님들과의 인터뷰, 한강 피크닉, 아쿠아리움, 동행 회식 등등 2학년으로서의 첫 학기가 더 풍부해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동기들, 또 후배들과 가까워지고 우리 과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남은 방학 잘 보내고 2학기에 만나요~



최정빈

동자과 개강 파티를 거쳐 동자 야구 관람, 동행 활동, 동자/동행 MT 등 동자과에서의 정말 알찬 시간들을 보내고 소식지로 활동들을 다시금 되뇌어 보면서 훨씬 재미있는 새내기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교 방문팀을 진행하면서 학과 홍보를 듣는 학생들만큼 동자과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점이 많았습니다. 훗날 동자과에 들어오게 될 새내기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고, 동행 활동을 이끌어주신 선배님들, 같이 즐겨준 동기들 모두 정말 고마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우민

처음에는 동자과에 대한 소식지를 만든다는 말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가입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던 국담 행사를 알게 해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동행에 들어오기를 망설이는 후배가 있다면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채호

세 번째 동행 활동과 함께 2학년의 첫 학기가 지나갔네요. 한 학기 동안 후배들과 여러 활동을 하며 추억도 쌓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작년에 이어 모교 방문팀으로 활동했는데, 여러 고등학교에 방문하고 동자과를 소개하면서 우리과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고 22호도 화이팅입니다!



허윤하

처음으로 동행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동자과에 대해 더 알아가며 선배님들과도 더 친해지고, 동기들과도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며 뜻깊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학부생 선배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유익하고 값진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앞으로 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신 덕분에 이런 활동이 처음임에도 부담 갖지 않고 열심히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한 학기 동안 동행 활동을 진행하며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어 인터뷰를 해주신 한재용 교수님과 이지홀딩스 신용진, 김우람, 김형우, 이해은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손민영, 이예림, 정해린, 김광명, 김예원, 최수민, 김현준, 하채호 학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토크콘서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창규 교수님과 초대에 흔쾌히 응해주신 김병훈 대표님 덕분에 정규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활하게 모교 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의도고등학교와 경희고등학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2학기

윤철희 교수님	100,000원
유경록 교수님	300,000원
99 문정현 님	300,000원
03 김영주 님	100,000원
11 이상목 님	110,000원

2026년 1학기

한재용 교수님	200,000원
김유용 교수님	300,000원
윤철희 교수님	100,000원
이창규 교수님	200,000원
김명후 교수님	200,000원
98 권기현 님	300,000원
03 김영주 님	100,000원
13 김수지 님	100,000원

동행은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도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자 분의 성함과 후원 금액은 명단에 1년 간 게시됩니다.

후원 계좌	토스뱅크 1002-3416-5375 (고솔비)
문의 번호	010-2549-0141 (고솔비)
문의 이메일	solsolb06@snu.ac.kr

同行
동행
리호



서울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소식지 동행

후원 | 토스뱅크 1002-3416-5375 (고솔비)
문의 | 010-2549-0141 / solsolb06@snu.ac.kr